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8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藝·社로운 만남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8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8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http://www.sncf.or.kr) /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8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8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 藝·社로운 만남

발행인 이대엽·이종덕

편집인 노채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이종필·김성호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d.or.kr](http://www.snd.or.kr) /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발행일 2009. 2

글·사진 강문영

디자인·인쇄 프리모아(주)

©성남문화재단

## 藝·社로운 만남

예술과 기업의 아름다운 만남

# ‘藝 · 社로운 만남’ | 목차

## 예가원 + 동양공예사

- 프로젝트북을 발간하며  
성남상공회의소와 함께한 예술과 기업의 아름다운 만남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일정
- 18 쉼터 만들기  
프로그램 개요  
동양공예사 봉사단과 함께  
작가와 함께  
작업을 마치고
- 34 협동화 작업을 통한 미술치유  
프로그램 개요  
세션진행  
미술치유를 마치고
- 62 “제 그림 멋있죠?”  
미술치유 개인별 작품
- 80 인터뷰  
남궁희 미술치료사와의 짧은 대화  
유선경 보조치료사와의 짧은 대화
- 84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요  
세션진행  
음악치료를 마치고
- 103 인터뷰  
예가원 김윤례 실장

## 자광원 + 크린토페바

- 106 사진모자이크  
프로그램 개요  
크린토페바 봉사단, 작가와 함께  
사진촬영을 마치고
- 128 옛 기억을 되살리는 풍속화  
프로그램 개요 및 진행
- 134 노인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요  
세션진행  
음악치료를 마치고
- 151 인터뷰  
황춘애 음악치료사와의 짧은 대화  
자광원 문유라 사회복지사
- 154 성남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 158 인터뷰  
박진영 예술감독
- 164 기업의 사회·문화공헌 활동 실태조사
- 177 성남지역 3개 대기업 심층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 186 부록  
성남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설문조사표

프로젝트북을 발간하며

## ‘藝·社로운 만남’

성남상공회의소와 함께 한 예술과 기업의 아름다운 만남...

성남문화재단은 2007년도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공단 프로젝트로 ‘콩닥콩닥 예술공단’을 진행하였다. 그 프로그램 중 ‘생기발랄 연두리본’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복지관을 문화공헌 활동으로 연결하여, 예술과 기업이 만나 아름다운 공헌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펼치게 되는 계기를 열게 되었다.

‘코맥스’는 ‘시온의집’과 만나 몸이 불편하여 항상 시멘트벽만 보고 계신 어른산들에게 대나무와 활짝 핀 꽃밭을 선사해 드렸다. ‘삼성테크윈’은 ‘우리공동체’를 만나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꽃모양 달모양 평상을 함께 만들었고, ‘크린토피아’는 ‘성남지역자활센터’와 만나 이야기 벽화가 있는 쉼터가 탄생했다. ‘동양공업사’와 ‘에스콰이어’는 ‘성남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과 ‘물푸레 어린이도서관’과 만나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동화나라 벽화와 도서관 간판, 그리고 의자, 책상, 실내장식을 어린이와 함께 새롭게 단장했다.

그 외에도 ‘생산과 존경의 벽’, ‘쉽, 오!’, ‘후끈후끈 상대원동’ 등 다양한 공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업 프로젝트로 ‘생기발랄 연두리본’을 지속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예술과 기업의 아름다운 만남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2008년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기업 프로젝트를 ‘藝·社로운 만남’이라 이름 붙였다.

기업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이다. 현대 사회에서 일상의 80% 이상을 보내는 기업공간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제 2의 생활공간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업을 지역사회의 주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어야만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확립,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된 문화정책의 흐름이 기업의 메세나 활동 장려를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문화공동체의 기업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기업의 경제적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문화공동체로 인식하여 이들의 내부적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예술가, 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자발적인 메세나 활동을 유도하는 통합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 스스로 내부의 틀을 깨고 나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藝·社로운 만남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기업 내부 공헌	문화예술동아리형 문화예술체험형 문화공간형 문화조직형
기업 외부 공헌	전문 문화예술단체 지원 시민클럽, 학교, 시민공동체 등의 창작 활동 지원 지역 공간의 문화적 공간으로의 재생 지원
기업의 통합형 공헌	내부적 지원 + 외부적 지원 : 기업 구성원들이 외부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는 문화예술체험의 기회와 시민 공동체와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유·무형적 문화예술 인프라를 제공한다.



‘기업 내부 공헌’은 기업 자체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실적과 전략’ 위주의 경영에서 ‘인간’ 중심의 경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기업은 내부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기업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어 업무 성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 대상의 문화예술동아리나 문화예술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기업 내부 공헌’으로 정의한다. 창의적 기업이 창조산업의 발전을 이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기업의 문화 정책을 공공기관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 외부 공헌’은 메세나 활동을 비롯해서 그동안 다양하게 펼쳐져 왔다. 특히 기업은 사회복지 증진,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문화예술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데 이를 ‘기업 외부 공헌’으로 정의한다. 기업의 문화가치창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에 이 같은 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이상적인 형태는 ‘기업의 통합형 공헌’이라 할 수 있다. 2007년도 성남문화재단의 ‘생기발랄 연두리 본’은 바로 그러한 통합형 공헌을 모델로 하였으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발성이 아닌 기업내부로 부터의 변화와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藝·社로운 만남의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도시, 성남’을 창조해 나갈 것이다. 향후 이러한 사업을 지역의 다양한 기업과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기업이 문화도시의 주체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의 사례는 향후 기업과 도시, 시민과 기업, 그리고 문화예술과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 낼 것이다.

성남문화재단

## 프로젝트 개요

지역사회에 이윤을 환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기업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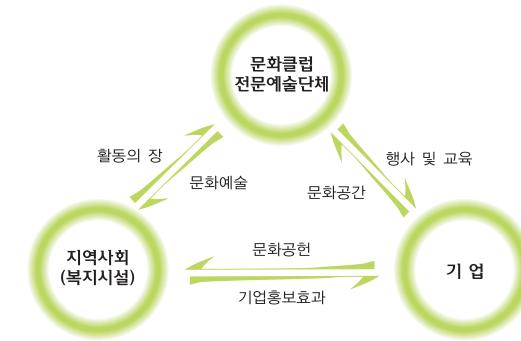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을 문화적인 형태로 접근하고자 마련되었다. ‘藝·社로운 만남’이라는 프로젝트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을 문화를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공헌의 형태로 탈바꿈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제목처럼 ‘예사’로운 일이 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이는 성남이 진정한 문화예술,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성남에 위치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문화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창조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이는 곧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공헌활동이 이러한 창조적 기업으로의 변화에 일조하고, 더 나아가 기업과 시민공동체, 전문문화예술단체간의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기업의 문화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정책과제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2006년의 ‘골목길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2007년의 ‘아파트 프로젝트’, ‘공단 프로젝트’, 2008년의 ‘시장 상가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진행한 ‘藝·社로운 만남 -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전문예술인과 문화클럽은 기업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업은 역으로 문화공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한 기업은 지역사회에 문화공헌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내에서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염두에 둔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연, 성남시의 주체인 기업과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분명 지역의 주체임에도 소외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거주자들과 소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또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문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고, 본인 스스로도 문화예술을 체험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기업 설문조사 역시 이러한 취지아래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공헌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정책 지원방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프로젝트 일정

2008

11월

12월

2009

1월

기업 설문조사 진행 (11월 1일~12월 19일)	코맥스 석진환 팀장 미팅 (12월 8일)	예가원 아트벤처, 평상 작업 - 동양공업사 봉사단 (12월 21일)	예가원, 자광원 후원금 전달 및 결과보고회 (1월 23일)
	장애인시설 예가원 미팅 (12월 9일)	예가원 음악치료 1~2차 (12월 22일)	예가원 미술치유 7차 (1월 2일)
	노인시설 자광원 1차 미팅 (12월 12일)	예가원 미술치유 4차 (12월 23일)	예가원 음악치료 3~4차 (1월 8일)
	노인시설 자광원 2차 미팅 (12월 16일)	예가원 미술치유 5차 (12월 26일)	예가원 미술치유 8차 (1월 9일)
	동양공업사 이정하 이사 미팅 (12월 17일)	예가원 미술치유 6차 (12월 30일)	예가원 음악치료 5~6차 (1월 10일)
	크린토피아 신우창 팀장 미팅 (12월 17일)	자광원 사진촬영 1차 - 크린토피아 봉사단 & 지역 작가 (12월 20일)	예가원 음악치료 7~8차 (1월 15일)
	크린토피아 사내 밴드 '크린스' 미팅 (12월 20일)	자광원 풍속화 작업 (12월 23일~12월30일)	자광원 음악치료 5~6차 (1월 5일)
	예가원 미술치유 1차 (12월 12일)	자광원 음악치료 1~2차 (12월 24일)	자광원 음악치료 7~8차 (1월 12일)
	예가원 아트벤처, 평상 작업 - 작가 (12월 16일~12월 22일)	자광원 사진촬영 2차 - 크린토피아 봉사단 (12월 27일)	
	예가원 미술치유 2차 (12월 16일)	자광원 음악치료 3~4차 (12월 29일)	
	예가원 미술치유 3차 (12월 19일)		



# 예가원+동방공법사

지적 성인 장애인 생활시설인 무지개동산 예가원은 분당구 야탑동 예비군훈련장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11월 23일 설립된 예가원은 지적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기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를 가지고 있다.

무연고자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사업 및 의료, 영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5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데인보우 두들소리'라는 자체 난타 공연팀을 운영할 만큼 예가원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예가원에서는 거주자들을 '가족'이라고 부른다. 이를 따라서 프로그램 내에서는 거주자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했다.



## ‘쉼터’ 만들기 동양공업사 봉사단과 함께

일시 : 2008. 12. 21

장소 : 예가원

참여 : 윤문헌, 박영식, 임병철, 조재곤, 김태수, 안병국, 안호영, 정이권



동양공업사 봉사단과 정삼선, 이화섭 미술작가가 참여하여 시설에 맞는 아트벤치와 평상을 제작했다.

작가는 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였다. 봉사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문화봉사를 경험하고 미술작가는 기술 지원과 진행 관리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원래 오시기로 했던 6분에서 2분이 더 오셨다. 박영식 팀장님과 조재곤 팀장님은 지난해 ‘콩닥콩닥 예술공단’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분이다.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참여자들이 더 오셨는데 이렇게 난감할 수가. 워낙 작업에 선수들이란 것을 지난해 프로젝트를 통해 알고 있기에 이 날의 일이 빨리 끝난다면 혹시나 보람을 못 느끼실까 봐서다.

작업을 이해하는 시간도 잠시,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일을 분담했다. 그리고선 먼저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벤치와 평상을 눈대중으로 보더니 똑같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공장장과 팀장인 분들은 여기저기 진행상황을 점검하신다. 입고 오신 작업복과 자체적으로 준비한 공구에서 이미 그 분들의 전문적인 포스가 느껴진 것도 사실이다.

한 편에서는 사포질을, 한 편에서는 재단되어진 나무를 연결해 벤치와 평상을 만든다.

“어제 술이 안 깼나, 왜 드릴에 힘이 없어. 안 되면 이리와 빼빠쳐!”

“동양공업사 이미지 흐리지 말고 이리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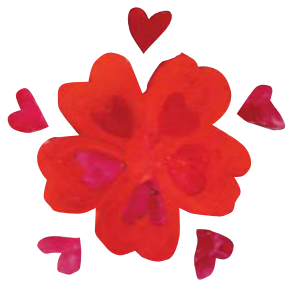
재단이 잘못 되었는지 한 분에 대한 원성이 높다. 그러나 웃음만은 가득하다.

2시간 정도 흐르니 벤치 하나가 똑딱 완성됐다. 그리고 1시간여 뒤 또 하나의 벤치가 완성됐다. 4시간 정도가 흐르자 완성된 평상과 벤치가 한 칸에 쌓였다. 작가들은 그저 입이 떠억 벌어질 뿐이다.

박영식 팀장님이 갑자기 칼을 드셨다. 알고 보니 식사를 준비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칼을 갈아달라고 하신 것. 바구니에 가져온 칼들은 족히 15개는 되어보였다.

“아예 갈 가는 받침대도 만들어 줘” 윤병철 팀장님의 말이다. 똑딱똑딱. 칼 받침대가 1분도 안 되어 만들어졌다.









01



02



03



04

03  
조재곤 팀장과 김태수 반장이 벤치 팔걸이를 함께 만들고 있다.

04  
일을 분담하여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양공업사 봉사단.

01  
윤문현 공장장, 박영식 팀장이 정삼선 작가와 벤치 작업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02  
이화섭 작가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안호영 기사가 드릴로 평상에 못을 박고 있다.





## 작가와 함께

일시 : 2008. 12. 16 ~ 12. 22

장소 : 예가원

참여 : 이화섭, 정삼선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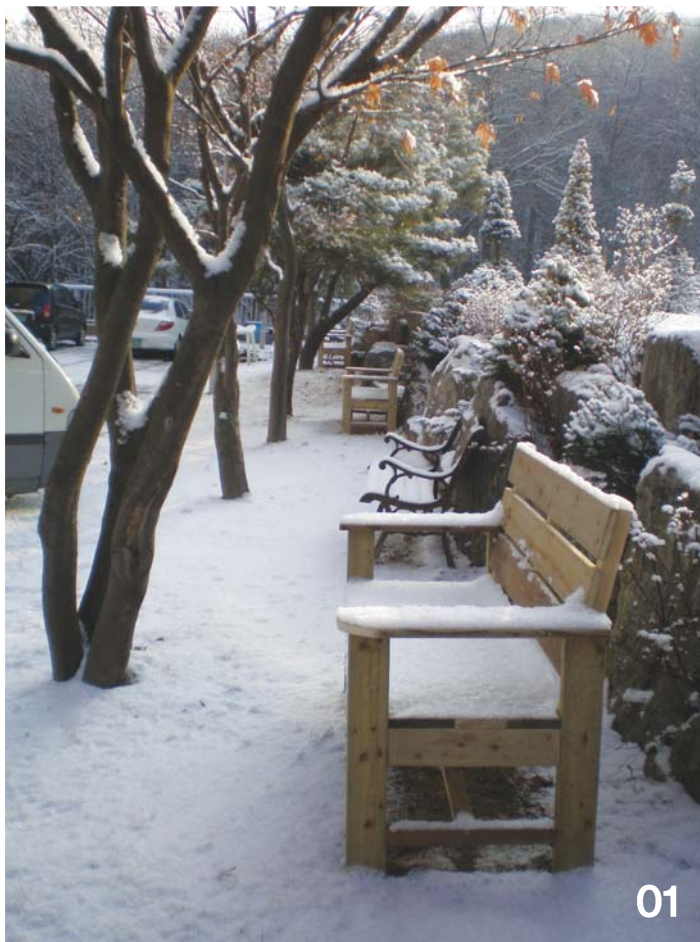


아트벤치와 평상을 만드는 작업은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예가원 건물 뒷편 주차장 한 편에 마련된 작업 공간. 이화섭, 정삼선 작가의 주무대다. 이화섭, 정삼선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 한 화가로서 지난해 상대원 프로젝트에서 벽화와 벤치작업을 한 경험이 있다.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고 하면 왠지 망치질과 톱질이 안 어울리는 고운 사람들일 것 같지만, 작업현장과 거부감 전혀 없이 매우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나무를 제단하고 톱질을 하는 모습은 마치 건설현장에서 몇 년 잔뼈가 굵은 사람들 같다.

벤치의 높이는 기존의 벤치 높이와 같은 50cm 3개와 5센티미터를 높인 55cm 3개로 하기로 했다. 높이를 높인 이유는 다리의 불편함을 가진 장애인들의 경우 낮은 벤치가 곤욕이라는 원장님 말씀 때문이다. 벤치와 평상의 도색작업은 안 하기로 했다. 작가들의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예가원 전체 풍경과 어울린다”는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비를 맞아 푹푹 얼어붙은 목재도, 영하의 기온에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오전의 추위도 이들 작가의 작업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예가원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식사를 준비하시는 봉사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작업하는 작가들에게 전빵과 커피, 음료 등을 끊임없이 대접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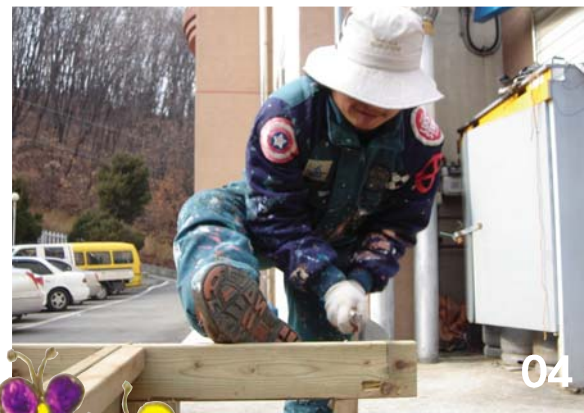
01  
완성된 벤치에 눈이 쌓여 있다.

02  
예가원 가족들이 나와 벤치에 앉아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03  
이화섭, 정삼선 작가가 완성된 벤치와 평상이 비에 맞지 않도록 비닐을 덮고 있다.

04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이화섭 작가.

05  
완성된 평상 윗부분을 옮기는 이화섭, 정삼선 작가.







06



07



08

06

이화섭 작가가 앞으로 진행할 벤치와 평상작업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07

정삼선 작가가 드릴로 못을 박고 있다.

08

툽뽀이 날리고 있는 가운데 나무를 재단하고 자르는 정삼선 작가.



## 작업을 마치고



### 윤문현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쉽사리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봉사라는 것을 늘 크고 어렵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벤치만들기 등 이러한 작업도 작은 보탬이지만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당당히 ‘봉사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 박영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다보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한 데, 한 번 시작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인식됩니다. 언제라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임병철

“올해 처음 와봤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또 올 생각입니다”



### 조재곤

“다들 몰라서 그렇지 돕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더 잘 만들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다음에는 잘할 것 같습니다”



### 김태수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자체가 좋습니다. 사장님이 나오셔서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병국

“쉬는 날이지만 동료들과 같이하니까 재미있고 보람됩니다. 이왕이면 회사에서 금전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 안호영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참하고 싶습니다. 일거리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이권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없는 한 늘 참석할 계획입니다”

### 이화섭

“모든 작업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가원에 계신 분들이 벤치와 평상에 앉아 편안히 얘기하는 모습을 어느 날 보게 된다면 미려한 보탬이었지만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삼선

“예가원에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든 생각이라면, 기업의 문화공헌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봉사단 스스로 자립해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단에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어떨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작가들은 자생력을 갖추게끔 도와주고 이로써 봉사단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협동화 작업을 통한 미술치유

일시 : 2008. 12. 12 ~ 2009. 01. 09

위치 : 예가원 집단활동실

대상 : 예가원 거주자 17명

세션 시행 : 남궁희 미술심리치료사, 보조 - 유선경 미술심리치료사



미술치료는 그리기, 칠하기, 만들기, 종이접기 등의 미술 작업의 수단을 통하여 대상자의 정서적인 갈등과 심리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고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객관적이고 의식적인 서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의 내면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예가원에 거주하는 지적,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각 개인별로 작품을 완성해 성취감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들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협동화 작업을 통해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점토와 아크릴 물감 등을 이용한 개인 작품을 완성하고 캔버스를 이용하여 협동화를 제작했다. 제작된 작품은 시설에 전시하여 소속감,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사회성과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 회기가 짧은 관계로 치료보다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미술치유'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미술치료사가 프로그램 전반을 진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밑그림과 정리, 설치물 제작은 작가가 협력했다.





2008. 12. 12 첫번째 날.

## 점토 자유 작업

이 날은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의 점토(라이트클레이)로 각자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자유 작업을 진행했다. 각자 좋아하는 색을 가지고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 흰 도화지 위에 붙여 놓는다. 모두들 만들고 붙이기에 열심이다.

그리고 각기 개성도 강하다.

작업보다 사진에 신경쓰던 조미자씨.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던 전규철씨.  
작업 방법을 다른이에게 열심히 설명하던 홍원기씨.  
여자친구가 있던 난타 멤버 남덕현씨는 이 날 유난히 쑥스러워했다.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쑥스러워 하던 조선주씨는 그러나 자신을 너무나 표현하고 싶었을까. 자신의 얼굴인 듯한, 단발머리의 귀걸이 목걸이를 한 소녀의 얼굴을 점토로 만들었다.  
영화감독 이름과 같은 활동적인 임권택씨는 축구 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강대위씨는 변선재씨 '공룡'작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은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옆으로 앉았다.







2008. 12. 16 두번째 날.

## 여행, 도시, 음악이 있는 곳

이 날 작업은 반구상. 3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음악, 여행, 도시라는 주제로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실제로는 여행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일까. 여행 주제에 많은 가족이 몰렸다.

남궁희 치료사가 주제에 따라 일일이 그려온 밑그림에 유성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도화지 빈 공간에는 자유롭게 그리기로 했다.

두 번째 시간이라 그런지 첫 번째 시간보다 자연스럽게 유쾌하다.  
예배실 한 칸에 마련된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차를 나눠마시며 그림을 그린다.

그림이 끝난 뒤, “자신의 그림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한다.  
단, 한, 사, 람, 도, 자신의 그림에 만족 못한다는 사람은 없었다!!

계속되는 덧칠로 형태가 없어져도, 검은색이 되어도,  
그림 그리는 행위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다. 그걸로 족하다.







01



02



03

01

색칠을 하는 도중 윤병례씨가 다른 동료의 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02

흰색으로 별과 달을 칠하고 있는 임대호씨. 세션 초반에는 원하는 색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다.

03

그림 그리는 삼매경에 빠진 박성준, 김은희씨.

04  
속도의 달인 임권택씨.  
한 세션 내에 2~3장의 그림을 그려  
냈다.



04





2009. 12. 19 세번째 날.

## 꽃과 나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몸풀기가 시작됐다.  
팔을 주욱 뻗고 고개를 돌리고...  
지뽀뽀한 몸을 스트레칭 해주니 긴장이 풀린다.

이 날은 '꽃'과 '나비'를 그리기로 했다.  
밑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나눠주기도 전에 '꽃'을 선점하는 흥원기씨.  
'꽃'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했다.  
남덕현씨와 민원기씨 박성준씨는 '물떠오기'를 걸고 가위바위보를 한다.  
"원기는 많이 했으니까 니가 해"라는 병례씨 말에 덕현씨는 마지 못해 물그릇을 들었다.

“선재 그림 하고 내 그림 중에 어떤 게 더 멋있어?”  
작품이 완성된 뒤, 흥원기씨에게 묻는 덕현씨의 말이다.  
원기씨는 덕현씨 그림을 보며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런, 눈치가 너무 빠른 원기씨.

01

세션 시작 전, 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진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있다.

02

황춘애 치료사가 “규철씨는 항상 웃어서 좋아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전규철씨와 조항주씨가 즐거워하고 있다.

03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는 임대호, 임권택씨.

04

황춘애 미술치료사가 조항주씨의 그림을 돕고 있다.











2008. 12. 26 네번째 날.

## 자유회

이 날의 주제는 '자유화'.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라고 하자,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던 '가족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 번에 2-3장의 그림을 그려내던 권택씨도 고민에 휩싸였다. 늘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병례씨는 한숨을 푹 쉬었고 덕현씨, 대위씨도 주변을 살피며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꼼꼼한 선재씨 역시 턱을 괴고 오래도록 생각에 빠졌다.

이 날은 유난히 여기저기서 '휴', '와'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고민의 순간이 지나고, 작품을 완성한 뒤 느껴지는,  
고통 뒤에 얻어지는 '성취감'이란 뿌듯함이 녹아나는, 그런 감탄사  
말이다.











2008. 12. 30 다섯번째 날.

## 무지개 동산 예가원

세션을 마무리하며 2009년에 하고 싶은 각자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

홍원기씨는 도미노 그림을, 민원기씨는 해동이 그림을 그리고 싶단다.

대위씨와 선재씨 그리고 진섭씨는 여자친구를 만들어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난타 멤버인 병례씨는 새해에도 빛나는 난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항주씨는 이날 지각한 탓에 두 번째 그림을 미처 완성하지 못했다. 이에 속상한 나머지 슬픈 얼굴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던 항주씨. 남궁희 치료사가 10분의 시간을 주었다.

12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그림을 그리던 항주씨는 완성된 자신의 그림을 보고서야 평소의 웃는 얼굴로 돌아간다. 양손에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환하게 웃는다.



01 홍원기씨가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광원 풍속화 작업에 참여하는 장우종 작가가 함께 하고 있다.

02 늘 말이 없이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김은희씨. 그러나 색채는 다채롭다.

03 벡타이를 메고 온 강대위씨. 물감이 묻을까 와이셔츠 단추 사이에 벡타이를 밀어 넣었다.





2009. 01. 02 여섯번째 날.

## 협동화

해가 바뀌고 처음 하는 미술치유시간.  
이 날은 예가원 내부에 전시할 '무지개 나무'를 그리기로 했다.  
지난 여섯 번째 시간에 연습한 바 있지만, 이 날은 조금 더 세심함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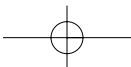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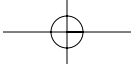
홍원기씨에게 앞치마를 입혀주는 선재씨.  
물을 뜨러가는 덕현, 권택, 성준, 민원기씨. 이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척척'이다.  
색을 칠하는 붓놀림이나 붓을 빨고 휴지를 이용해 물기를 닦는 모습이 제법 능숙하다.

대호씨는 이제 원하는 색을 얘기하며 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초반에는 원하는 색이 앞에 없어도 가만히 있거나 없는 데로 한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리던 그였다. 대호씨는 이 날 자신의 그림과 동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며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리고선 자신이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지 옆에 서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이 날 완성한 그림은 벽화가 되어 예가원 벽면에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무지개 나무'의 열매에는 예가원 '가족'들의 모습을 담는다.











2009. 01. 09 **마지막** 날.

## 나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작품 감상

'가족'들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된 자신과 동료들이 완성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치료사 선생님들과 답소를 나누며 차를 마셨다.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이다.

이 날 만들 작품의 주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  
첫 번째 시간의 재료였던 점토(라이트 클레이)를 이용해 만들기로 했다.  
주어진 점토는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초록색, 하얀색이었다.  
그러나 모두 주어진 색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다들 그동안의 그림 작업으로 다양한 색에 익숙해진 탓일 게다.

갑자기 홍원기씨가 "다음엔 또 언제해요?"라고 묻는다. 분명 어제 음악치료시간에는 "내일이면 미술시간이 끝나요"라고 말하던 그였다. 그의 능청스런 질문에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항주씨는 모두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아쉬운 듯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 미술치유를 마치고

8회 동안 구성원들이 욕구를 충분히 표현하게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짧은 회기로 진행되었고 집단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작업을 스스로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소극적이며 의존적인 경향에서 자율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개인의 작품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 여러 회기를 진행하는 동안 물감과 붓을 사용하면서 구성원의 자기 효능감이 증대되었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개개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작품 안에 표현하도록 도왔으며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난 다음, 언어로 말하도록 격려했다.

미술작업은 매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개개인의 창조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창조활동이 집단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반복적으로 학습되어진 일상 생활규칙과 장기간 집단생활에서 오는 자기억제나 억압된 감정들이 분출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활동은 장애로 오는 만성적인 무기력감과 우울감, 공허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예가원에서 진행한 미술치유작업의 위와 같은 성과에 주목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자기 성장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남궁희 미술치료사





## “제 그림 멋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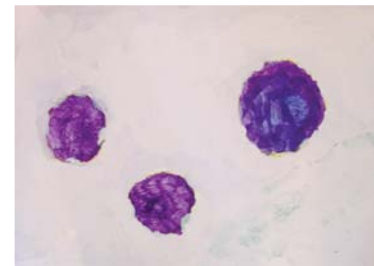
### 미술치유 개인별 작품

이번 미술치유프로그램에서 예가원 ‘가족’ 들은 치료사, 관계자들도  
돌랄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표현력이나 상상력은 비장애인들보다  
훌륭하다는 것. 그럼, 이들의 작품속으로 빠져보자.

### 강 대 위 작품



매우 수줍어하고 깔끔한 성격이다. 또한 멋쟁이기도 하다. 그만큼 자기 선호도가 강해서 선생님이 싫으면 수업이든 무엇이든 거부하는 타입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은 재미있었는지 끝까지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김 덕 순 작품



얌전하고 여성스럽다. 방 동료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고. 프로그램 전에는 그림을 그리더라도 늘 작고 유아적인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품도 커지고 색깔 역시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 김 은 희 작품



남을 잘 돕고 협조적이지만 평소에 말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제한을 받지 않는 미술이라는 매체는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을까.



## 남 덕현 작품



밝은 듯 하지만 자기 표현을 잘 안 한다는 덕현씨. 프로그램 초반에는 무엇을 그릴까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던 그도 중반에 가서는 그림의 주제를 정하고 그리는 속도가 빨라졌다. 마지막 시간,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설명하던 그가 눈에 선하다.



## 민 원기 작품



시력이 안 좋아 늘 도화지를 눈 가까이에 대고 그림을 그리던 원기씨.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고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았다는 그. 병례씨 옆에 앉아 이것저것 챙기고 공동으로 쓸 물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물을 떠오는 등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듯.





## 박성준 작품



지점토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설계도면을 그릴 정도로 예가원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예술가. 장난꾸러기 같다가도 어느새 외롭고 쓸쓸해 한다고 한다. 문제행동이 있었는데 최근 그러한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조각칼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한다. 이번 작품활동을 보면서 예가원측도 가능하다면 준비해주고 싶다고.



## 변선재 작품



세션이 끝나고 늘 선생님들을 도와 자리를 정리하던 선재씨.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겨울은 난타공연이 없는 시기인데 그 허전한 마음을 미술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어 행복해했다고 한다.



## 심진섭 작품



조용하게 말하나 자신의 생각은 늘 확실하게 표현하는 타입이다. 미세한 표현을 하는 것이 부족했는데 이번 작품 활동을 통해 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 윤병례 작품



꼼꼼하고 컴퓨터를 배우는 등의 학습욕구가 강하다고 한다. 특히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꼼꼼한 색칠에 일가견이 있는 그는 늘 사물과 같은 정확한 형태와 색을 칠하기를 원했다.





## 임 권 태 작품



축구를 좋아하며 활발하다. 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일찍 나와 자리를 준비하는 등의 열정을 보였다. 또 한 번의 세션동안 늘 2~3장의 그림을 그려내기도, 생각은 많은데 언어장애가 있다 보니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미술프로그램은 자신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창구였다.



자신의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인정받았다 싶으면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려고 한다.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자신이 원하는 색을 말하지 않았으나 중반부터는 적극성을 띠고 자신이 원하는 색을 말하고 자신과 동료의 작품을 한없이 들여다보기도 했다. 중반에는 도화지를 가져가 생활실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 임 대 호 작품





전 규철  
작품

난타팀과 같은 방을 쓴다. 난타팀이 연습과 외부공연이 많아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규철씨. 또한 난타팀을 특별대우한다는 생각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서인지 문제행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격성이 완화되었을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향상되어 자신감을 많이 회복한 듯 보인다.

정향숙  
작품

의존적인 것을 싫어하고 독립적인 성격이다. 자신이 계속 활동하고 움직여야 유용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같은 방 동료들과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밀감이 높아지는 등 더욱 성취감을 느꼈다고.



## 조 미 자 작품



기운이 세다보니 평소 다른 동료들을 많이 놀리고 꼬집는 등의 문제행동이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심을 받고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이러한 문제행동이 순화된 것으로 보인다.



## 조 선 주 작품



역시 예가원 예술가 그룹의 한 명. 구체적이고 세밀한 표현에 뛰어난 사람 중 한 명. 선생님과의 친밀감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면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조항주  
작품

워낙 밝은 성격이다. 일정한 규칙과 다른 멤버와의 조화가 중요한 난타는 안 맞았는데 미술 프로그램은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과 맞았던 것 같다는 선생님의 증언이다. 머리스타일과 찢는 것에 민감하다. 그래서 종종 지각이 있었던 듯.

홍원기  
작품

학습욕구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그다. 방에서도 늘 공부할 정도. 다양한 미술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작품활동을 한 것에 대해 즐거워했다고.



## 인터뷰

## 남궁희 미술치료사와의 짧은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소감을 말해 달라.

매 회마다 보람을 느꼈다. ‘가족’들이 미술시간을 기다리고 내면의 욕구를 발산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너무나 순수하고 맑은 모습에서 감동을 받기도 했다. 사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결과물과 함께 성취감, 만족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그러나 회기도 짧았고 그룹 구성원도 많았다. 그럼에도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을 완성해왔다. 그러니 이 분들이 오히려 나를 도운 것이 아닌가.

프로그램 초점은 어디에 두었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작업 위주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소속감, 이타주의를 갖게 함으로써 집단응집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개별적으로는 작품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매 회기마다 주어진 재료와 주제 하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색을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싶은 밑그림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자기만족과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성과가 있다면?

프로그램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타주의, 친밀감, 사회성, 자존감, 성취감 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훨씬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분들의 재능을 발견해 주고 키워주는 일인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이었다. 예를 들어 예가원 난타팀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또한 미술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즉 이들이 성취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간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축제의 경우 일반인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소외계층역시 같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도 엄연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 유선경 보조치료사와의 짧은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소감을 말해 달라.

성장과정이 일반인과 다른 발달장애인들은 규칙과 질서에 대한 엄격한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본능적인 욕구가 같을 것이고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창조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 같다. 미술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기쁨은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여전히 크게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과정에 몰두하는 모습과 나온 작품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그런 점을 느꼈다.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

치료사, 관계자와의 관계를 보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가족' 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의 작업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이다.

보조치료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치료사가 설명한 매체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고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또한 인원이 많은 관계로 개별적인 피드백을 보충하였다.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회기가 짧고 인원이 많았던 점이다. 인원을 발달장애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은 문화적 혜택이 많이 필요하다. 그들이 이 땅에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함께 하는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원해 준 재단과 기업에 감사한다.



##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음악치료

일시 : 2008.12.22 ~ 2009.01.15

위치 : 예가원 집단활동실

대상 : 예가원 거주자 22명

세션 시행 : 황춘애 음악치료사



음악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음악적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다양한 발달영역에서의 기능(functional skills)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며 자아실현을 도와 주는 데에 있다. 심미적 경험은 인간의 발달과정에 필수적이며 음악은 이러한 경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음악치료는 음악 안에서 자기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과제수행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데에서 시작한다. 즉 다양한 음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때 변화가 유도되고 설정된 치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A,B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노래부르기(singing), 음악감상(listening), 악기연주하기(playing), 음악적 동작(movement), 음악만들기(creating), 악보보기(reading) 등의 음악적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력 향상 및 타인과의 관계형성, 감정표현능력, 환경적응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A그룹은 구성원 대부분이 지적, 신체 장애와 중증언어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들이다. 일부는 자폐성향을 가지고 있다. 20대로 연령층이 낮은 A그룹과 달리 B그룹은 연령층이 높고 A그룹보다 인지능력이 좋으며 지적,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A그룹은 언어교정과 감정표현능력 등 장애 특성상 개별적으로 접근하였다. B그룹은 그룹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세션 참여도를 높이는 등의 그룹 활동과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08. 12. 22 첫번째 날.

A  
그룹

## 노래부르기

〈썩트네〉라는 곡을 개사한 노래 ‘인사송’이 세션 시작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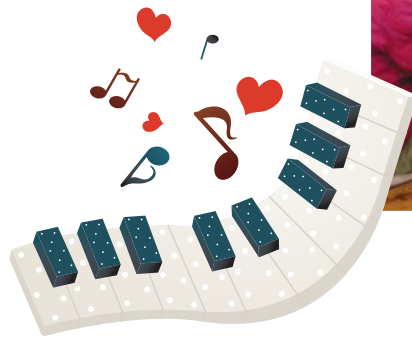
“만나서 반가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름)  
즐거운 음악시간. 함께 시작 해봐요”

반복해 노래를 부르면서 구성원들 한 명씩 이름을 넣어 부르자 ‘가족’들이 미소를 지으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어 악기를 연주해보는 시간.

각 종 ‘쉐이커’와 ‘개구리 소리 악기’, 탬버린, 우드블럭, 카바사 등의 악기가 소개되고, 각자 연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씨는 손이 불편했으나 치료사의 도움으로 악기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자 소리를 내고 웃으며 즐거워했다. 초록씨 등 다른 ‘가족’들도 여러 악기들을 만져보며 역시 신기해했다.







## B 그룬

###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먼저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을 서로 얘기하는 것으로 세션이 시작됐다.

밝은 표정의 선영씨는 "이번 주 집에 가기로 했다"며 몸을 흔들며 좋아했다.  
성렬씨는 "형이 차 타고 온대요"를 여러 번 반복했다.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되는  
표정이다.

대호씨는 "엄마, 아빠가 생각난다"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홍원기씨는 크리스마스 행사때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자랑했다.





2009. 01. 08 두번째 날.

A  
그룹

## 악기로 표현하고 말하기

이 날은 '소리리듬카드'로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5까지 숫자가 쓰여진 카드는 글씨의 크기가 작거나 크게 되어 있다.

큰 숫자는 크게 말하고 작은 숫자는 작게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언어장애가 있는 A그룹의 발음교정, 소리지각, 집중력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 첫 번째 시간 활동실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미연씨가 이 날 정민씨 옆에 앉아 세션에 임했다!

한 명씩 천천히 돌아가며 목소리를 내보았다.

소리를 내기 힘든 정은씨는 눈꺼풀을 감빡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숫자를 읽어들었다.

미연씨는 선생님만이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세션내내 고개를 들지는 않았지만 치료사가 호명하면 고개를 잠시 들어 치료사와 눈을 맞추고 악기를 만져보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01  
첫 번째 시간 활동실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오미연씨가 세션에 임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02  
몸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배경환씨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03  
황춘애 치료사가 직접 준비해온 '소리리듬카드'를 가족들이 읽고 있다.



B  
그룹

## 치료악기 연주하기

쉐이커 등 악기를 연주해 보는 시간. 다들 비가 오는 소리 같라며 ‘레인보우메이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개구리 소리’ 악기에 대해서는 악기명칭과 같이 대부분이 개구리가 우는 소리 같다는 대답을 했다.

그러나 대호씨는 뽕튀기를 돌리는 기계소리와 같다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

치료사의 인도로 대호씨는 일어서서 개구리 소리 악기를 돌리며 뽕튀기 돌리는 흥내를 냈으며 큰 소리로 “뽕” 하는 소리를 내어 좌중을 놀래키기도 했다.

세션이 끝나 점심시간이 되어도 대호씨는 ‘개구리 소리’ 악기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했다.



01



02



03

01 B그룹 가족들이 새해 계획을 얘기하고 있다.

02 황춘애 치료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최성렬씨.

03 세션이 끝나면 늘 뒷정리를 하던 진석용씨.



2009. 01. 10 세 번째 날.

A  
그룹

## 기타 연주하기

치료사는 '가족들이 직접 기타로 '인사송'을 연주해 보게 했다. 늘 다른 곳을 보던 윤호, 경환, 지훈씨도 기타소리에 얼굴을 돌렸다. 모두 기타를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사가 왼쪽 손으로 코드를 잡으면 '가족들은 한 사람씩 기타 연주를 하며 소리를 내었다. 활동실을 뛰어다니던 윤호씨는 '인사송'이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보이며 연주를 했다. 연주를 마치자, 다들 한 곡을 모두 연주했다는 성취감을 느낀 듯, 미소가 감돈다.



B  
그룹

## 하트 보내기

음악치료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B그룹 '가족'들에게 있어 곤혹스런 일이다.

하나 둘, 활동실 앞에 도착하는 '가족'들. 대호씨는 자꾸만 문을 가리키며 성마르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성렬씨와 성수씨는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이 날따라 늦게 끝난 A그룹 세션

이 날 진행된 '하트그리기' 게임은 '가족'들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한 몫 했다. '하트그리기 게임'은 <우리 모두 다같이> 곡에 맞춰 '하트'를 다른 '가족'에게 보내는 것. 단, 한 번 받은 사람에게는 '하트'를 보낼 수 없다.

선영씨는 배우 강동원에게 하트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인숙씨는 황춘애 치료사에게 하트를 보냈다. 하트를 받은 대부분의 '가족'들은 수줍은 듯 미소를 띄었다. 손가락으로 팔로 하트를 그리면서 모두들 신중하게 천천히 하트를 보내었다. 말이 없는 수중씨는 옆에 앉은 후원기씨의 손을 잡는 것으로 마음의 하트를 전달했다.





01  
말이 없고 조용하던 노수종 씨가 미소를 지으며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02  
황춘애 치료사가 핸드벨 악보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03  
핸드벨 연주 시범을 보이고 있는 황춘애 치료사.





2009. 01. 15 **마지막** 날.A  
그룹**소리 듣고 악기 맞추기**

매 시간 활동실을 뛰어다니던 윤호씨가 이 날은 자리에 앉아 선생님과 보다 길게 눈을 마주쳤다. 이 날은 '가족들 대부분이 치료사와의 눈 맞춤 시간이 전 시간에 비해 길어졌다.

황춘애 치료사의 '빨래판'악기 연주에 정은씨가 '까르륵'하고 크게 소리를 내어 웃는다. 정은씨는 이 날 내내 '까르륵'하고 웃었다.

신이나기는 경환씨도 마찬가지.  
몸을 지속적으로 흔들었지만 선생님의 호명에 고개를 돌리며 악기 이름을 따라 말하고 노래도 흥얼거렸다.

음악치료프로그램의 마지막이자 이 날의 마지막 순서인 눈을 감고서 연주된 악기를 맞추는 시간. 정은씨는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지 또 '까르륵'.

정민씨, 두찬씨, 지수씨는 눈을 꼬옥 감고 선생님이 뒤에서 연주한 악기를 찾느라 고심했다. 그러나 게임이라는 생각에 이내 즐거운 듯 웃어버렸다.





## 악기 이름 만들기

자리 가운데에 모아져 있는 악기들을 만져보던 기섭씨는 호기심이 생겼는지 악기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다. 즉흥적으로 '악기 이름 만들기' 순서가 마련됐다. 악기의 소리를 들어보고 연상되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핸드벨'의 이름은 '종소리'로 바뀌었다. '카바샤'라는 어려운 이름의 악기는 '칙칙이'란 좀 더 쉬운 이름을 얻게 됐다. '쉐이커'의 경우는 '쌀 씻는 소리', '압력밥솥 밥 익는 소리'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악기들이 이 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01  
악기를 흔들어 보이며 즐거워하는 표경희씨.

02  
빨래판 악기를 연주하며 활짝 웃는 이두찬씨.

01  
기타를 연주하는 박정민씨. 예전에도 음악치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악기 연주에 능숙하다.

02  
치료사가 기타연주를 하게 한 뒤 쉬는 시간, 진석용씨가 기타를 잡아 연주하고 있다.

03  
표경희씨가 악기 모양에 신기해하며 웃고 있다.

04  
신윤호씨가 자리에 앉아 기타연주에 집중하고 있다.





## 음악치료를 마치고



단계적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악기나 몸짓, 구두/비구두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표현력 향상을 시키는데 치료의 목적을 두었다.

A그룹의 경우 자폐와 신체장애, 지적장애, 중증언어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되었고 대부분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B그룹의 경우는 인지능력은 A그룹보다 양호했으며 신체장애와 지적장애가 대부분이어서 그룹별로 차별화된 음악치료 활동을 하였다.

A그룹의 경우 노래 안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치료사와 함께 연주함으로써 눈맞춤과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었으며, 노래 가사를 따라 함으로써 발음을 모방하게 하고, 스스로 연주 함으로써 자신감 향상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양한 음악치료 악기 탐색 시간을 갖고 연주하자 모두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리듬카드와 소리식별 카드는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도록 했다. 핸드벨 연주를 통해서도 자기 차례 인지 및 소리지각 변별력, 집중력 향상을 유도했다. B그룹의 경우는 일정 주제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지금의 관심사와 연결된 여러 이야기 나눔으로써 현재의 감정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유도했다. 또한 그룹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그룹 내에서 더욱 친근한 감정을 갖도록 하였다.

음악치료 악기 설명 및 악기 탐색을 통해서도 연관된 단어와 이야기를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유도했으며, 소리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도왔다.

긍정적인 말(칭찬)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익숙한 노래를 개사해서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불러보는 활동을 통해서도 그룹의 친밀감이 증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황춘애 음악치료사



인터뷰

## 예가원 김윤례 실장



“벤치와 평상의 경우, 우선 작가 분들과 기업 봉사단 분들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자체에서도 감동했고 감사했다. 또한 벤치와 평상이 예가원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멋드러져서 매우 만족한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금전적, 인력의 문제로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늘 있어 왔다. 여름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예가원 ‘가족’들이 밖에 나와 돛자리를 깔고 앉아서 더위를 식혀왔으나 안전사고가 빈번했다. 이제는 벤치와 평상이 생겨 안전사고 없이 ‘가족’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 역시 편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미술, 음악치료 프로그램 역시 확실히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과 다르다. 의사표현의 욕구는 누구나 있는데,

장애가 있다보니 그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술,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문제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또한 ‘가족’들이 밝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룹활동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덕에 그동안 친하지 않았던 다른 동료들을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협동심도 길러졌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선생님들이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가족’들의 미술작품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다양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치료사 선생님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기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좀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자광원+크리토펠라

2001년 3월 28일, 수정구 북정동에 설립된 자광원은 처음에는 무의탁 노인 시설로서 시작되었다. 경증, 중증 치매, 중풍, 와상 등의 병증을 가지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이었으나 2008년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바뀌면서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모두 거주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치중해왔으나 이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발마사지 등 그동안 봉사자나 직원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한계에 부딪혀왔고 섭외한 외부 강사 역시 금세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

자광원에서는 거주자들을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이를 따라서 프로그램 내에서는 거주자들을 '어르신'이라고 표현했다.



## “사진모자이크” 크린토피아 봉사단, 작가와 함께

일시 : 2008. 12. 2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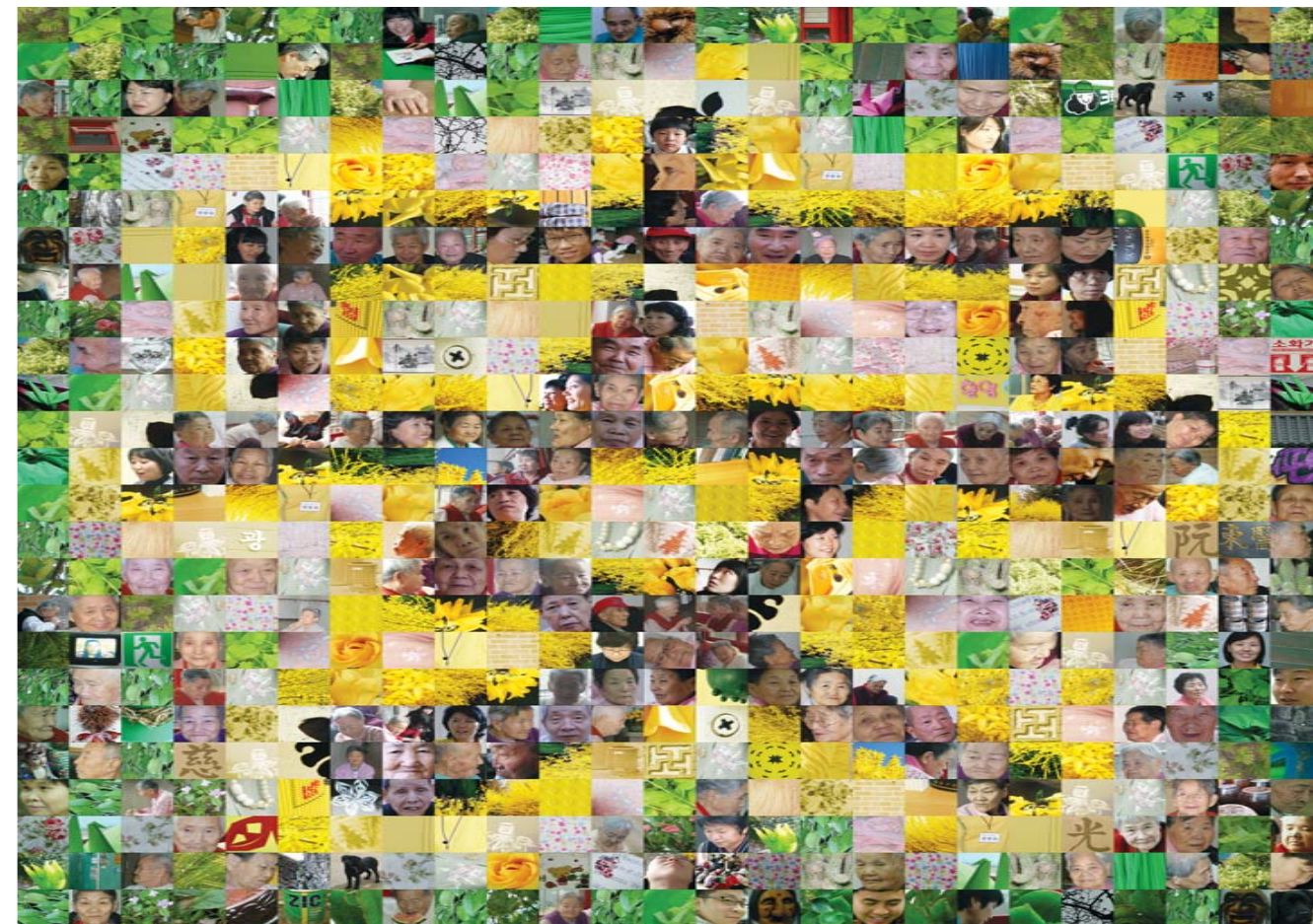
장소 : 자광원

참여 : 크린토피아 봉사단

신우창, 김우영, 권주환 박병민 황해원 박현주, 김유나, 손성훈

지역작가 : 박기홍, 서정훈, 한찬효

어르신들과 자광원의 풍경을 담은 사진 촬영 작업은 크린토피아와 지역작가가 함께 했다. 두 차례에 걸쳐 크린토피아 봉사단이 자광원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카메라로 자광원 어르신들과 시설 풍경을 담아냈다. 봉사단이 찍은 사진은 디자이너에 의해 보정과 디자인 작업을 함으로써 내용적, 심미적 완성도를 높여 사진모자이크로 연출되었다. 결과물은 액자로 제작되어 시설 벽면에 설치되었다. 봉사단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문화 봉사를 경험하고, 시설 거주자들은 사진모자이크를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기획의도다.







01  
시설 내부에 설치된 사진모자이크 작품.

02  
소나무 형상을 한 사진모자이크 작품. 소나무는 자광원 어르신들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03  
한자로 '安'을 형상화한 사진모자이크 작품. '安'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04  
어르신들이 설치된 사진모자이크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05  
어르신들이 작품 속에서 자신의 사진을 찾으려 답소를 나누고 있다.





2008. 12. 20 **첫**번째 날.

#### 기업봉사단

신우창, 김우영, 권주환, 박병민

#### 지역작가

박기홍, 서정훈, 이화섭, 정삼선, 한찬효



사진을 찍기 위해 자광원에 모인 사람들은 크린토피아의 신우창 팀장을 포함한 4명과 지역작가 5명, 9명이었다. 크린토피아 봉사단은 자광원 내부의 어르신들의 인물 사진을 중심으로, 작가들은 자광원 외부 환경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

작가들은 그렇다치고, 어르신들께 카메라를 들이대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은 기우였다. 크린토피아의 자칭타칭 ‘바스코트’ 김우영씨는 때마침 간식시간이었던 할머니들께

먹을 것을 얻어 먹는 여유를 보여주며 분위기를 압도했다. 김우영씨는 지난해 ‘뽕닥콩닥에 술공단’ 프로젝트에 봉사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왜 찍는 거야?”

“예쁘셔서 찍는 거예요”

“하하하하. 수고하네”

결국, 김우영씨는 지하 세탁실에 주저 앉아버렸다. 빨래를 개기던 어르신들과 함께 빨래 개기에 도전한 것. 바닥에 앉은 김에 숨겨진 노래 실력까지 뽐냈다.

"노래 너무 잘한다"며 어르신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다.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 우영씨 숨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사진 찍히기 싫다고 손을 저으시던 할머니들도 김우영씨의 ‘애교작렬’에 이내 웃음을 보이시며 손가락 브이를 그리신다. 주뽕주뽕 서있던 신우창, 권주환, 박병민씨도 우영씨의 활약에 힘 있어 어르신 사진찍기에 도전했다.











01  
어르신들의 애기동무가 되어드리는 권주환씨.

02  
서정훈, 이화섭 작가가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

03  
분위기메이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즐겁게 사진을 찍는  
김유영씨.





2008. 12. 27 **두번째 날.**

### 기업봉사단

김유영 박현주 황해원 김유나(봉사단가족), 손성훈(봉사단가족)



크린토피아의 2차 '사진 촬영' 활동은 봉사단과 같이 온 가족 손성훈(6살), 김유나(10살)의 '활약'으로 '뿌듯함' 위에다 즐거움이 더해진 시간이였다.

이 날 참석하기로 했던 크린토피아의 봉사단 중 일부가 회사내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대신 여성3인방인 김유영, 박현주, 황해원씨가 어린이 지원군과 함께 온 것.

1차 활동에 참여했던 김유영씨는 17살 차이나는 여동생 유나와, 처음 참여한다는 황해원씨는 6살배기 아들 성훈이와 함께 왔다.

이 날도 유영씨는 자리 깔고 앉아 할머니들과 함께 더덕을 다듬었다. 이에 질세라, 황해원씨는 간식을 나눠드리는 것을 돕고 걸레를 들었다. 입사한 지 한달되었다는 박현주씨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에 서툼이 없었다. 먼저 다가가 필요하신 것을 여쭙보고 애기동무가 되어드린다.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건 이들만이 아니었다. 성훈이와 유나 역시 그랬다. 성훈이는 어르신들과 손 잡고 같이 사진을 찍히기도 하고 자신이 찍기도 했다. 덤으로 트로트 <무조건>이란 노래를 부르기까지. 유나는 언니 유영씨와 토닥이는 것으로 웃음을 주었다.

할머니들이 아껴두었던 간식을 아이들에게 챙겨주신다. 아이들도 변죽 좋게 넘죽넘죽 잘 받는다. 성훈이와 유나의 재롱에 어르신들 역시 전과 달리 말씀이 많아지셨다. 웃음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도 전과 다른 점이다.

어깨와 다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에게는 손주표 안마를,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화상대 역할을 자임했다. 어르신들도 봉사단의 손을 꼬옥 잡고 놓지를 않으셨다.







01

02

03

04



05



06

01

사진을 찍는 김유영씨와 포즈를 취하시는 어르신.

02

이날 인기가 많았던 성훈이가 어르신과 포즈를 잡았다.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엄마 황혜원씨.

03

“어디 잘 나왔나 보자”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확인하는 여성3인방, 김유영, 박현주, 황혜원씨.

04

박현주씨가 어르신 옆에 앉아 얘기동무가 되어드렸다.

05

어르신의 다리를 주무르는 김유나, 손성훈 어린이.

06

엄마는 어르신과 자세를 잡고 아들은 ‘찰칵’.



## 사진 촬영을 마치고

크린토피아의 두 차례의 걸친 '사진 촬영' 그리고 이어진 하나의 기쁜 소식  
일정이 마무리 되어갈 즈음, 크린토피아의 신우창 팀장은 자광원의 사회복지사와 만남을 갖고 '세탁봉사'를 약속하였다.  
시설과 기업의 '지속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신우창

“이러한 좋은 일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권주환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내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저도 나이 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같은 모습일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합니다”







김유영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던 경험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할 때는 보람을 느끼지만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박병민

“제가 좋아하는 일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박현주

“개인적으로 혼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방법도 모르고, 회사차원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면 참여하기도 수월하죠. 복지 시설이 있는 그 지역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개인적으로 부담도 없고 좋은 일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황해원



“일회성에 끝나는 표면적으로 보이기 위한 봉사활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지속적인 문화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도 계속 활동 하시게 되어서 좋을 것 같아요”



## 옛 기억을 되살리는 풍속화

일시 : 2008. 12. 23 ~ 2008. 12. 30

위치 : 자광원 자원봉사실

참여 : 이화섭, 장우중 작가

시설 어르신들의 대다수는 농촌에서 성장하여 농촌에 대한 기억이 많다. 때문에 농촌에서 생활했던 행동을 보이거나, 농촌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따라서 시설내부에 풍속화를 제작하여 기억을 도와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의 속도를 늦추고자 기획되었다. 농촌 풍경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자 전문작가가 참여했다.

### 첫 단계

“풍속화를 그리기 위한 첫 단계는, 캔버스에 착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먼저 '젯소'를 칠해야 해요. 그래야 유성성분의 물감이 캔버스에 잘 스며들거든요” 이화섭 작가의 말이다.

작업을 하는 동안 원장님 손녀를 포함하여 시설 어르신, 직원분들이 그림을 보러 방문하셨다. “작가가 직접 그리는 그림을 보는 건 처음”이라는 분, “완성이 기대된다”는 분 등 완성된 그림을 궁금해 했다.

이화섭 작가는 벽화작업을 비롯해 목공작업까지 전천후 멀티플레이어작가다. 장우중 작가는 현재 용인의 한 복지관에서 장년층을 대상으로 1년 넘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다.





## 두 번째 단계

젯소가 마른 뒤에 밑그림을 그려 넣는다.  
장우중 작가에게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나로서는 1석 2조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좋은 취지에 미력을 보탬 수도 있으니까.  
자광원에 계신 분들도 그림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시고 자광원의 분위기를 보다 환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세 번째 단계

밑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다시 젯소를 칠한다. 캔버스에 묻은 얼룩이나 불필요한 선들을 지우는 작업이다.

이화섭 작가는 작업의 소감을 문자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일상입니다. 일상을 좋다, 싫다,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 네 번째 단계

젯소로 캔버스를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채색작업에 들어간다.

“풍속화는 화선지에 동양화물감으로 번짐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는 아크릴 물감으로 캔버스에 표현하기 때문에 힘이 드네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이화섭 작가의 말이다.

산보 다녀오신 한○○ 할머니도 점사점사 그림을 보러 오셨다. 그림 어떠냐는 질문에 수줍게 웃으시며 “좋다”고 말씀하셨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뭐라 하시던 할아버지 역시 그림이 만족스러우신지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 다섯 번째 단계

채색 작업을 마치면, 먹선 작업에 들어간다. 그 전에 우선 채색이 잘 되었는지 꼼꼼히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우중 작가는

“먹선 작업은 채색작업과는 달리 빠른 손놀림으로 선의 강약 하나하나에 생동감을 나타내야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과감함, 그리고 세밀함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라며 다소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 마무리

마지막 붓터치가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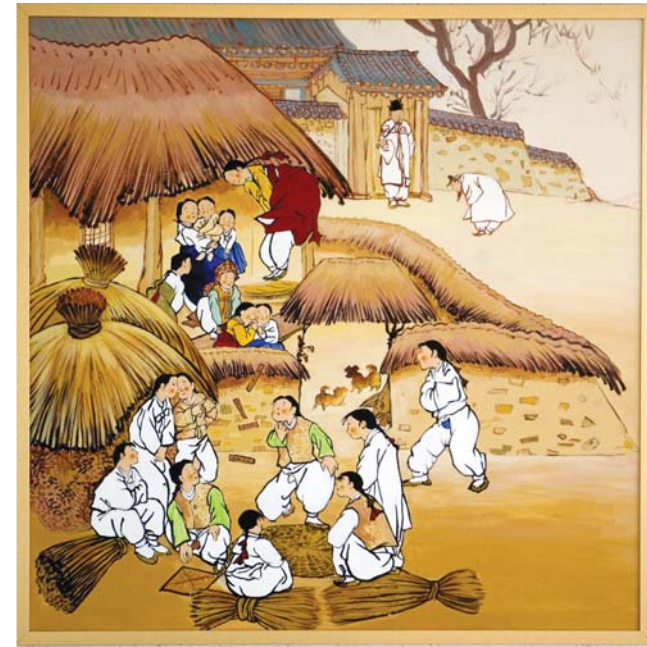
김장을 담그는 아낙네들의 모습과 예전 설날의 풍경이었을 널뛰고 윷놀이 하는 풍속화 두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회가 자주 없는데 아쉬울 따름이죠. 작가와 이런 활동의 지속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며 장우중 작가가 아쉬움을 토로한다.

“열심히 했지만, 작가로서는 늘 아쉽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림을 보고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고 기억을 더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작품을 마무리 한 뒤,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이화섭 작가의 말이다.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까지 원장님을 비롯, 여러 어르신과 선생님들이 구경 오셨다. 그리고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

“신기하다”  
“정말 멋있네요”.





## 노인을 위한 음악치료

일시 : 2008. 12. 24 ~ 2009. 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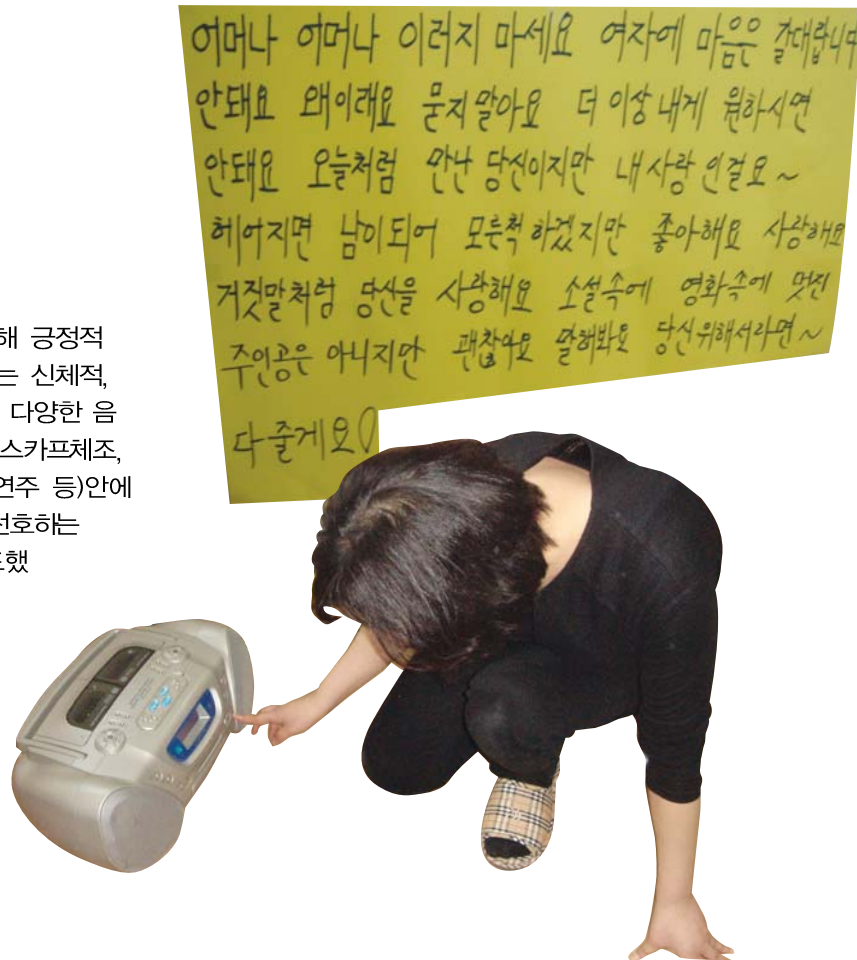
위치 : 자광원 생활실

대상 : 자광원 어르신 A, B그룹 총 15명

세션 시행 : 황춘애 음악치료사

현실인식능력, 집중력, 대인관계기술증진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노화로 인해 저하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 및 유지시키도록 했다. 다양한 음악적 활동(칭찬 노래 만들어 부르기, 민요 부르기, 스카프체조, 핸드벨 연주, 가사 채워 넣기, 장구연주, 치료악기 연주 등)안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가장 선호하는 활동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즐거운 감정을 유발하고 감각기관을 재훈련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어르신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존감 향상을 유도하고 계획하였다.

A, B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경증의 치매 등의 병증을 가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그룹별 각 4회, 총 8회 진행했다.



2008. 12. 24 첫번째 날.

A  
그룹

### 노래자랑

“뭘 한데?” “노래 한데” “몰라 어여 들어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무언가를 한다니, 호기심이 가득하다.

황춘애 음악치료사의 인사가 시작되고 참석하신 할머니들의 각자 소개가 이어졌다.

자기소개는 각자의 소개를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기억력 증진을 도와드리는 작업이다. 이제, 노래를 직접 불러보는 시간. 분위기는 어느새 노래자랑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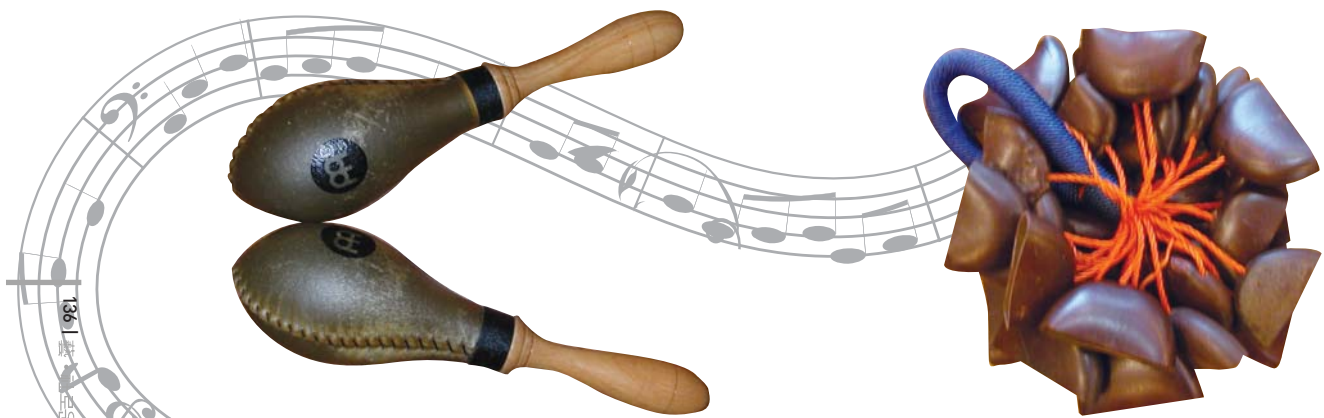
박○○ 할머니의 18번 <타향살이>는 합창이 되었다. 손을 들어 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던 김○○ 할머니는 <눈물젖은 두만강>을 부르셨다. 치료사의 눈을 마주치시면서 나지막히 노래를 부르셨다. 눈에는 눈물을 담으시고서.

B  
그룹

### 스카프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위해 인지능력향상을 고려한 빨간색의 스카프를 나눠드리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먼저 자신들의 스카프를 개기 시작하셨다. 살아오시면서 습관처럼 늘상 하시던 일이었던 탓일 게다.

알츠하이머이신 분들이 최근의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젊은 시절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해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건설현장인부'였던 분은 벽돌을 나르신다거나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모내기를 하시는 흉내를 내신다는 것. 몸에 새겨진 기억은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각인과 같다.



01  
장구를 연주하는 어르신.

02  
스트레칭을 위해 스카프를 나눠드리자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어르신들은 스카프를 개기 시작하셨다.

03  
자신을 소개하는 황춘애 치료사.







2008. 12. 29 **두번째 날.**

**A**  
그룹

## 민요부르기

박○○ 할머니는 지난 24일 있었던 음악치료시간에 오래 앉아 계시다 허리에 무리가 가셨다고 한다!! 누워계시라는 치료사의 말에 "이렇게 하는데 누워있어야 되겠소?"라시며 치료사의 만류에도 극구 일어나 앉으셨다. 누워계시기도 하셨지만 박○○ 할머니는 2시간 연속 참여하시는 열정을 보이시며 시간 끝에는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셨다.

갑자기 이○○ 어르신이 앞으로 성큼 나오셨다.

지난 27일 사진모자이크 촬영 당시, 크린토피아의 유영씨와 더덕을 같이 다듬으며 활발히 대화를 하시고, 동료 할머니의 옷 매무새까지 신경쓰시던 정 많고 활발하신 성격의 할머니다.

치료사가 가진 악보에 어떤 곡이 있는지 내심 궁금하셨나 보다.

부르고 싶으신 곡 있으면 키보드로 연주하겠다는 치료사의 말에 고개를 저으면서도 악보는 놓지 않으셨다. <아리랑> 반주가 나오자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다.

<잘했군, 잘했어>, <군밤타령> 등 민요가 흐르자 지난 시간 일어서서 춤을 추셨던 연○○ 할머니가 이번에는 앉아서 손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



**B**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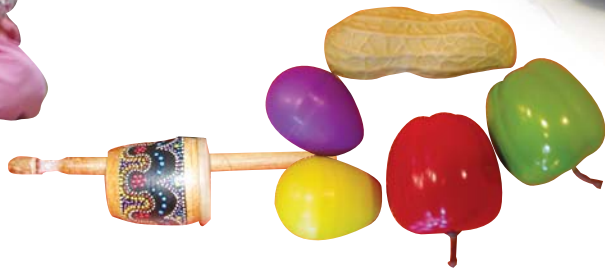
## 쉐이커 연주

어르신들이 치료사가 가져온 '쉐이커'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다. 치료사는 각종 과일 모양의 쉐이커를 보여드리며 그 모양과 색, 그리고 맛을 연상시키도록 하고 얘기를 끌어냈다.

박○○ 할머니가 '도토리' 모양의 쉐이커를 보시더니, 도토리묵이라고 하셨다. 내친 김에 치료사는 '도토리묵' 생김새와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른다. '도토리묵'을 모른다니까 당최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들이시다. 어르신들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알고 계시던 이런 저런 정보를 제공하신다. 지난 시간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시던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주제가 나오자 적극적이시다.

이어 쉐이커로 박자 맞추기 놀이가 진행됐다.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악기를 오른쪽 사람에게 전달하는 놀이로 순발력과 손의 힘을 기르는데 좋다고. 쉐이커는 달걀, 사과, 땅콩, 도토리, 바나나 등의 여러가지 음식 모양속에 잡곡들이 들어있어 흔들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악기다.

처음엔 박자를 맞추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놀이가 손에 익자 오히려 시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셨다.







2009. 01. 05 세번째 날.

A  
그런

## 자신을 칭찬하기

이 날 세션에서는 자기 자신을 '칭찬'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로 <나는 열일곱살이에요>의 일부분인 8마디를 개사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나는 ----- 예쁘답니다.

당신만 아세요. 예쁜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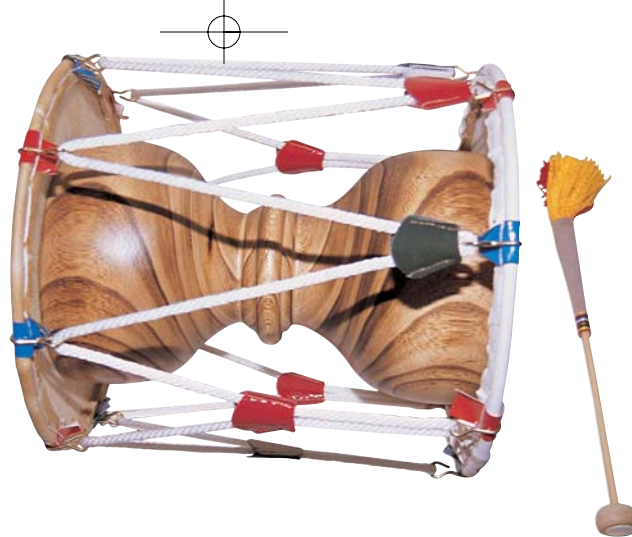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예쁜 점' 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사에 삽입하고 마무리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는 형식이다.

홍○○ 할머니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셨지만, 황춘애 치료사는 "어르신은 웃음이 참 예쁘세요" 라면서 할머니의 '예쁜점' 을 찾아주었다. 이후에도 치료사는 자신의 장점을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예쁜점' 을 찾아주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나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날 예쁘다고 했어"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 할머니는 '얼굴' .

염○○ 할머니는 "난 똥똥해서 마음에 드는게 없다"고 하셨지만 황춘애 치료사는 이내 "눈빛이 예쁘세요" 라고 일러줬다. 모든 어르신이 예쁜점을 찾으셨다.

황춘애 치료사는 세션이 끝난 뒤, 어르신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필요" 하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B  
그런

## 장구연주

<나는 열일곱살이에요> 가사에 맞춰 이번엔 율동 창작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주 병원에 가시느라 같이 하지 못했던 박○○ 할머니는 이 날 호방하신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셨다. 지난 주 못하신 것까지 만회를 하시려는 듯, 율동도 재미있게 만드시고 시간 내내 적극적으로 셧다. 덤으로 좌중에 웃음까지.

<군밤타령>과 <창부타령>에 때맞춰 장구가 등장했다. 이 날은 장구를 그냥 쳐보는 것에 더 나아가 '장구기호 보는 법을 배우고 직접 연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장구를 쳐보셨다. 첫 시간에는 처음이라 못 친다며 손사래 치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장단을 맞추신다. "난 못 하는데" 하시면서도 당신들 손을 이용해 치는 '땡, 기덕' 소리에 재미있어 하신다.

이 날의 히어로 박○○ 할머니는 세션이 끝나고 나가시면서까지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셨다.

♪ "가~만히~~ ♪ 오~세~요~" ♪







2009. 01. 12 **마지막** 날.

**A**  
그룹

## 핸드벨 연주

황춘애 치료사가 가져온 핸드벨은 7가지 무지개 색을 띠고 있었다. 늘 말쑥이 없으셨던 박○○ 할머니는 황춘애 치료사의 핸드벨 시범연주에 소리를 내어 웃으셨다. ‘고놈 참 신기하다’ 는 듯이.

한 개씩 핸드벨을 가지고서 어르신들은 연주를 시작하셨다. 곡목은 〈풍당풍당〉.

자신의 순서를 놓칠 새라 어르신들의 악보를 보시는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셨다.

박○○ 어르신이 순서를 놓치면 이○○, 염○○ 할머니께서 어서 종을 치라고 종용하셨다. 그도 안 되면 염○○ 어르신이 핸드벨을 직접 연주하셨다. 이 날 염○○ 어르신은 ‘핸드벨’ 연주에 있어 발군의 실력을 보이셨다.

세션이 마무리될 즈음, 이 날 무릎이 아파 세션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셨던 연○○ 할머니는 “이제 안 아파”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시더니 나가실 때는 들어오실 때 이용하신 휠체어에 앉지 않으시고 일어나 걸어서 나가셨다.



**B**  
그룹

## 연상놀이

〈쾌지나 칭칭나네〉란 민요곡조에 맞춰 한 분씩 돌아가며, 그 장소에 있는 것들의 이름을 대는 연상놀이를 진행했다.

먼저 ‘바다’ 로 가보았다.

물, 조개, 고기, 대구, 미역, 모래, 배..

물고기 이름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 보다.

고기란 이름만 나올 뿐 더 나오질 않는다.

다음은 ‘산’ 으로 넘어가서, 머루, 버섯, 열매, 산나물, 소나무, 더덕, 도라지, 다래 그리고 늑대, 토끼, 호랑이....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 바다보다 산에 더 익숙하신가 보다.

이 날 어르신들 모두 마지막 세션이라는데 적잖이 아쉬움을 나타내셨다.

어르신들은 “이제 마지막이라니 아쉽네”라며 말을 건네셨다.

백○○, 이○○ 할머니는 “신이 나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셨다.

박○○ 할머니는 “몸이 아파 보다 열심히 참여 못해 아쉽다”고

박○○ 할머니는 “악기를 연주를 하니까 좋았는데”하시며 말끝을 흐리셨다.



01  
스카프로 스트레칭을 하는 어르신들.

02  
시설 내에 비치되어 있었지만 처음 본다는  
장구를 어르신들이 연주하고 있다.

03  
핸드벨 연주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

04  
핸드벨 악보를 보며 집중하고 있는 어르신들.

05  
어르신들이 장구 연주를 하고 있다.

06  
핸드벨 악보 보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  
황춘에 치료사.





## 음악치료를 마치고

친밀감이 쌓일수록 치료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데 짧은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치료로서 깊게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주장보다는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공통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세션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지지와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악기연주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억눌렀던 자신을 표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악기연주(음악치료 악기)를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익숙한 악기(장구)에 대해 자유롭게 즉흥연주하는 모습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의욕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자주 눈에 띄었다.

옛 기억을 유도하는 활동을 통해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함께 불러보기도 하고 당시 이야기도 나누면서 자신의 옛 모습과 기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장점을 노래로 만들어 보고 불러 봄으로써 스스로를 칭찬하고 구성원을 칭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황춘애 음악치료사



인터뷰

## 황춘애 음악치료사와의 짧은 대화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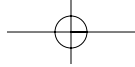
매 순간 보람이었다. 처음에는 전혀 표현하지 않았던 분이 자신의 얘기를 깊게 얘기할 때 웃음이 없던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질 때, 자광원의 한 어르신은 노래를 부르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다. 이처럼 순간순간 기대이상의 반응이 나왔을 때 더 깊게 치료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 뿐, 보람의 순간이었다.

프로그램 초점은 어디에 두었나?

회기마다 다르고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존감과 자기표현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자광원 어르신들의 경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자기표현력 향상에 중점을 두려고 했다. 이를 위해 자신에 대해 칭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 연상작용을 하도록 많이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특성상 정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많이 하도록 시간을 가졌다.

예가원의 경우는 A,B그룹의 장애정도가 너무 달라서 그룹별로 다른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A그룹의 경우는 모두 개별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시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발음연습을 통해 언어표현력을 높이려고 했다.

B그룹의 경우는 인지능력이 A그룹보다 좋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 치중했다. 강제성을 피더라도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그룹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호이해, 사회성을 높이도록 노력했다.

###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항상 그랬듯이 끝나고 나면 늘 아쉽다. 물론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는 있었고 그래왔지만,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가장 아쉬웠던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기간이 길었다면 개개인별로 치료의 계획이 세워졌을 텐데 좀 더 깊게 치료가 들어가지 못하고 겉만 훑고 지나가서 너무나 아쉽다.

프로그램 안에서는 더 다양한 악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쉽다. 대형악기의 경우는 이동의 불편함 등이 있기 때문에 소악기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이 분들이 대형악기를 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 하고 싶은 말은?

금전적 후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 분들의 마음속 근본적인 부분에 다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까지 이러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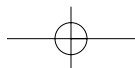
## 자광원 문유라 사회복지사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용하고 침체되었던 자광원이 활기에 넘치게 되었다. 봉사단이 다녀가시고 작가분들이 오셔서 그림을 그리시니 분위기가 활동적이면서 밝아진 것이다.

음악치료프로그램의 경우 어르신들의 호기심이 대단하셨다. 직원들도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 있구나”하고 생각했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좋다’, ‘재미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다. 음악치료프로그램의 경우 좀 더 지속성이 있었으면 한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너무 짧은 기간으로 진행되어서 아쉬웠다”

“사진모자이크 작품의 경우 어르신들과 직원분들이 서로 자신이 찍힌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풍속화 역시 ‘내가 예전에 저렇게 했어’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셨다. 사진모자이크와 풍속화는 지속적으로 자광원에 설치될 것이기에 효과는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작품으로 인해 자광원이 더 멋있어졌다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성남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기업의 문화공헌

2009년 1월 23일, 결과보고회와 함께 성남상공회의소의 성금, 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예가원 집단활동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진행된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의 과정과 성과를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예가원 가족과 성남상공회의소의 변봉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성남문화재단의 이종덕상임이사, 문화기획부 직원, 프로젝트 스텝 등이 참석했다.

2시 30분, 예가원에 도착한 회장단과 임원진들은 미술프로그램에 참여한 예가원 가족들의 작품과 기업봉사단 작가들의 아트벤치, 평상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관람했다. 이어서 프로젝트와 이 자리를 축하하는 예가원의 ‘레인보우 두들소리’의 난타 공연이 이어졌다. 회장단과 임원진들은 이들의 작품과 공연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탄성이 계속 이어졌다.

이어진 성품 전달식에서 예가원 정권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가장 기뻐던 행사가 바로 이번 프로젝트였다”면서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곧이어 성남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성남문화재단 임원진들은 자광원으로 자리를 옮겨 사진모자이크와 풍속화를 관람했다.

자광원 김정자 원장은 “사진모자이크 작품을 보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자신들의 사진을 찾는다”며 “자광원에 좋은 프로그램과 작품을 선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광원이 내용면에서나 환경면에서나 더욱 멋있는 곳으로 변모한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프로그램과 관련 성남상공회의소의 변봉덕 회장은 “이 분들의 작품과 공연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 것 같다”면서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화재단의 이종덕상임이사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생한 표현력을 가진 작품과 난타공연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술치료프로그램은 처음 보았는데 그 가능성을 열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기획부 박승현 부장은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너무나 좋다”며 “기업들의 문화예술봉사가 많은 결실을 나타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날의 행사를 끝으로 ‘藝·社로운 만남 -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는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업이 일조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속성’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기도 하였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방안과 함께 기업의 이러한 열정을 지역 곳곳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남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업의 문화공헌’이라는 화두는 던져졌다. 이제 ‘기업’과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시민 공동체, 행정기관이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서로 접촉하면서,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를 함께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01  
성남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박진영 예술감독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02  
성남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자광원에 성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3  
예가원의 '레인보우 두들소리' 난타공연팀이 공연을 하고 있다.







## 인터뷰

## “문화를 즐기고 느끼는 게 먼저다”

박진영 예술감독

## 1.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해 달라

시점에 따라 좋았을 수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다. 특히 기업의 문화공헌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많이 부족하다. 반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용이나 조직적인 면에서는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프로젝트를 떠나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과 지내다보니 근본적으로 이 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친구되기’의 방법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느꼈다.

## 2. 프로그램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획되었는가?

##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는가?

복지시설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복지시설 이용자는 공간과 행동의 제약으로 내면세계가 단조로울 수 있다. 공간과 행동의 제약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내면의 자극이다. 따라서 정신적 자극을 통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물리적 한계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와 같은 기획의도를 문화적 접근으로 풀어나간 것이 이번에 진행한 예술치료프로그램과 사진모자이크, 풍속화, 아트벤치작업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대상은 장애인과 노인이다. 때문에 프로그램의 초점은 같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각 복지시설의 특수성에 맞추었다. 장애인시설인 예가원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감을 심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면 노인 시설

인 자광원에서는 옛 기억을 자극하여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미술치유와 음악치료이다.

예가원은 미술치유와 음악치료를 병행하면서 시설 이용자에게 다양한 감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했다. 자광원은 사진모자이크와 풍속화 제작으로 노인들의 옛 기억을 자극하고자 했고 음악치료프로그램 안에서는 자아표현의 장이 되도록 기획했다.

기업의 참여 역시 이번 프로그램의 한 축이다. 성남 내 위치한 기업은 이미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문화공헌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작가와 예술치료사에게는 지역 복지시설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주문했다. 이러한 각 주체들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접촉하고 ‘지역공동체 가치 만들기’를 ‘함께’ 해 나갔다는 데에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둘 수 있겠다.

## 3. 프로젝트의 성과를 얘기한다면?

우선 미술, 음악치료프로그램을 통해 기대이상의 결과를 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짧은 기간 안에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 자존감, 사회성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다. 물론 이는 치료사들의 역량이 컸던 부분이다. 기간이 좀 더 길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든다.

또한 사진모자이크의 경우 설치한 당일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를 후 다시 방문했더니 어르신들이 사진모자이크 작품 앞에서 대화를 나누셨다. 그때 “내 사진 두 장 나왔어. 가서 봐봐”하고 말씀 하시는 걸 들었다. 풍속화에 대한 반응도 보이셨는데 “내가 예전에 저렇게 긴장 했었어”라고 말씀하시더라. 기획의도가 충분히 드러났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광원에 애깃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라도 보람을 느

끼는 부분이었다.

더불어 지역작가의 역량을 재차 확인했고 뛰어난 예술치료사들 만났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를 통해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치료사, 작가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이 많았다. 전문인으로서 어렵고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프로젝트를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 또 치료사, 작가들의 팀웍이 매우 좋았다. 경험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 4. 반대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물론 짧은 기간이다. 특히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경우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치료로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치료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었다.

또한 치료대상자 역시 적정인원 수준보다 많은 구성원으로 구성되면서 치료사 두 분에게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하나의 큰 아쉬움 혹은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낀 것이다. 지난해 ‘뽕닥콩닥 예술공단’ 프로젝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업을 찾고 참여를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절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 5. 그렇다면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기업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실행으로 먼저 옮기다보니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먼저 기업의 노동자들이 문화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라는 것은 즐기고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것은 이분들이 업무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하는 것이었다. 애초에 과제부

터 주어진, 전말이 전도된 느낌이었다.

즉 노동자들이 직접 문화를 즐겨야 그 다음에 ‘공헌’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참여하면서 개별적인 보람을 느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참여나 보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를 즐기고 느낀다면 자연적으로 지역사회가 문화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사주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았으면 한다. 문화공헌활동이던 봉사활동이던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주다. 사주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솔직하게 느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일의 진행은 순조로울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예술심리치료사가 기업에 들어가 노동자 혹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또 지역작가들이 이들과 함께 작업을 해보는 것이다. 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작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남은 과제라고 본다. 이 과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모든 예술 감독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 6.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재단도 더욱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면에서 재단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또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껴왔다.

그럼에도 쓴 소리를 해야 한다면, 재단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참여 주체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체인 기업이나 시설, 작가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끌고 가기 보단 거의 따라오는 실정이었다. 작가들의 경우, 개개인별로 충분한 작품능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실 프로젝트란 것은 작가들 혹은 주체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과정 혹은 결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미술은 특히 그러하다.

물론 시설과 기업과의 역량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스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단도 동시에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다. 이는 어떠한 프로젝트이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계속 견지해야 할 태도라고 본다. 재단이 프로젝트 주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 7.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혹은 진행되었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있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지난 해 봄, 복지시설을 조사하면서 ‘공부방’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방과 후 교육’이 부족할 것이라는 피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환경은 더욱 열악했다. 대부분, 한 부모 혹은 한 조부모 가정이었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은 예사였다. 경제적 궁핍도 문제지만 정신적 피해함이 더 커 보였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집에 가기 싫어하는데 경제력이 없는 이들이 갈 곳이란 게 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함에도 한두 가지의 조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러한 차상위 계층의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적, 사회적 관심에서 제외된다.

이 때 생각한 것이 미술, 음악 등 문화를 매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끼를 발산하면서 자신감을 키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삶의 활력을 주는 무언가를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기를 바랐다. 주변을 보면 간혹 빈부를 떠나서 취미나 특기 등 자신의 관심사가 없는 경우를 봤다. 자신의 관심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혹은 그 삶의 질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단 한 명이라도 비뚤어지는 친구들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싶다.

“비뚤어지려고 했는데, 그 때 어떤 선생님이 와서요. 이렇게 됐어요”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게 된다면 그 때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

## 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얘기했듯, 다소 어려운 프로젝트였음에도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치료사, 작가들에게 감사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한 진행 방법이었음에도 열심히 따라주고 지원해 준 기업봉사단과 자광원, 예가원 거주자, 관계자에게 감사한다.



## 기업의사회, 문화공헌 활동 실태조사

### 연구개요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공헌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정책 지원방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유형을 파악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문화클럽과 시민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성남문화재단이 전수환 교수팀과 함께 설문문항을 설계하였으며, 성남상공회의소의 협조 하에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은 크게

1. 사회공헌활동 실태
  2. 문화공헌활동 실태
  3. 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 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설문에는 기업체 일반사항, 기업의 문화예술지원활동 전개여부, 활동 유형, 참여 동기, 참여활동 정보수집 경로, 진행과정상의 장애요인, 향후 추진 유형, 개선점, 성남문화재단에 바라는 정책 등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문항을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복수 응답을 한 기업이 많았다. 이러한 복수 응답도 답변으로 채택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표본수와 답변의 빈도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복수응답'으로 표시하였다.

1단계 ; 11월 1일 ~ 30일

성남상공회소 회원 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남상공회의소 메일을 통해 설문을 배포하여 7부 회수.

2단계 ; 12월 1일 ~ 12월 19일까지

설문에 응하지 않은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일이 전화하여, 설문 응답을 부탁했다. 총 28개 회수했다. 제조업 21개, 서비스 8개, 건설 3개, 판매 3개 등 총 35개 기업이 설문에 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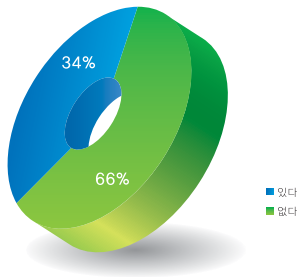


## 설문분석

### 사회공헌활동

#### 1.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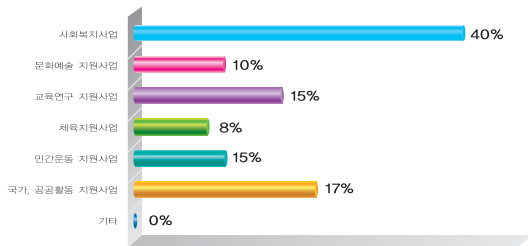
설문에 응한 기업들 중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66%에 달했다. 이는 조사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 사회공헌활동 실시 유형 비중(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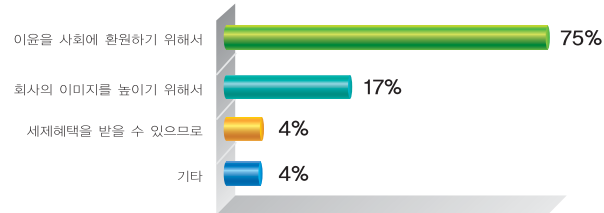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

과, ‘사회복지사업’이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 공공활동 지원사업’이 17%, 다음으로는 ‘교육연구지원사업’ 15%, ‘문화예술지원사업’ 9%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운동지원사업’, ‘체육지원사업’은 모두 6%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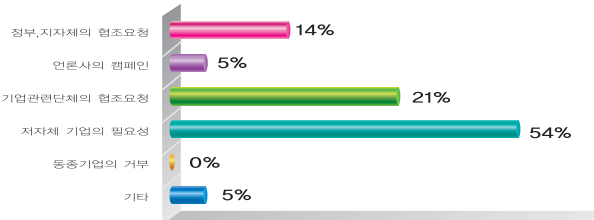
#### 3. 사회공헌활동 참여 동기(복수응답)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물었다. 첫 번째 이유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1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는 4%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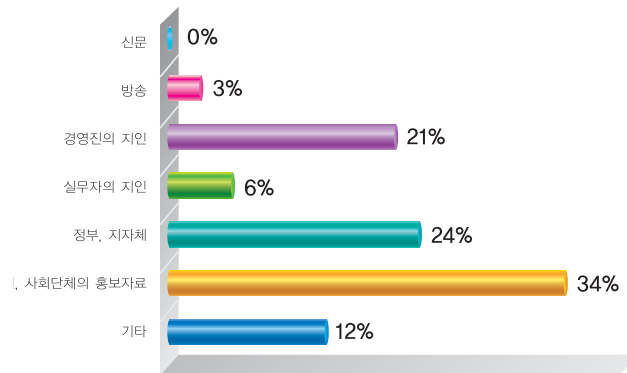
#### 4. 사회공헌활동에 영향 미치는 외부요인(복수응답)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들 활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엇을 꼽았을까. 52%의 기업이 ‘자체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기업 관련 단체의 협조요청’과 ‘정부, 지자체의 협조요청’이 각각 24%와 14%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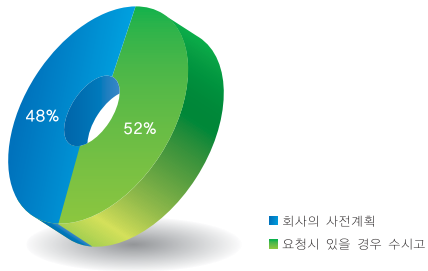
#### 5. 사회공헌활동 결정과정의 정보 수집원(복수응답)

대부분의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결정시 ‘민간사회단체의 홍보자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24%를 기록한 ‘정부, 지자체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진의 지인도 2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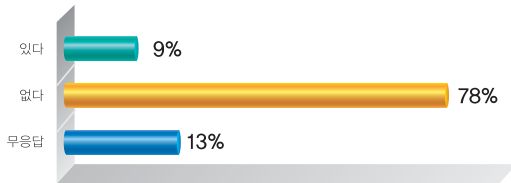
## 6. 사회공헌활동 참여 결정 방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회사의 사전계획’에 따라 참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견과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참여한다는 의견이 각각 52%와 48%로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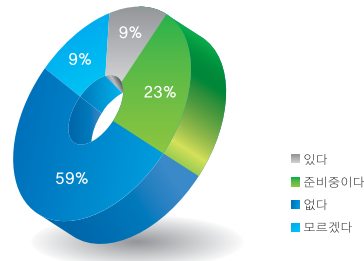
## 7. 사회공헌활동 전담부서 존재 여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의 78%는 ‘없다’에 응답했다.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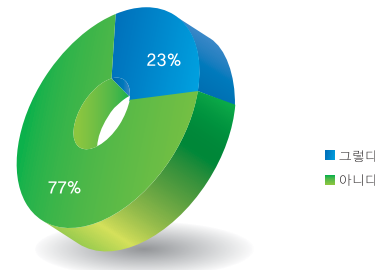
## 8. 사회공헌활동 내규문서 존재 여부

사회공헌과 관련한 내규 문서가 있는 기업은 9%로 나타났다으며 없는 기업은 59%로 드러났다. 그러나 내규 문서를 준비 중인 기업도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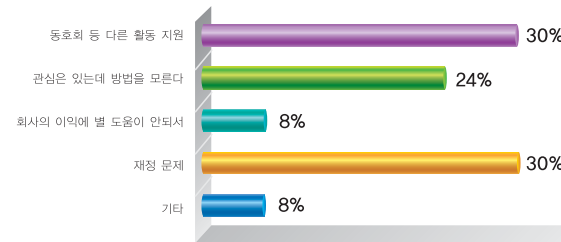
## 9. 사회공헌활동 참여 직원 혜택 여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업은 2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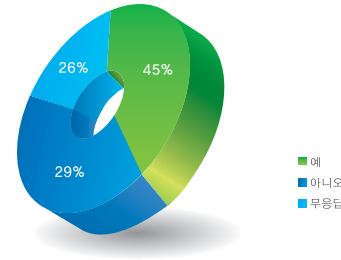
## 10. 사회공헌활동 참여 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그렇다면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기업은 제일먼저 ‘제정문제’ (30%)와 ‘다른 활동 지원’ (30%) 항목을 꼽았다.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른다’는 의견도 24%를 차지했다. ‘회사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8%를 기록했다.



## 11. 사회공헌활동 차후 실행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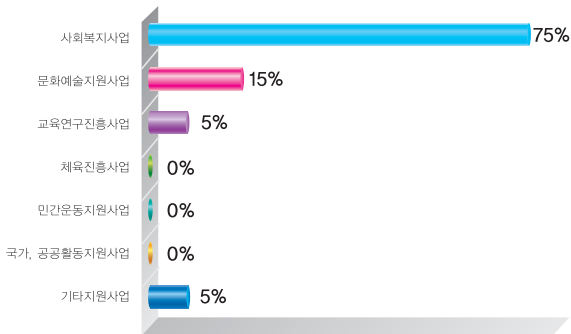
향후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은 4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번 문항에서 현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66%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중 32%가 사회공헌활동의 향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2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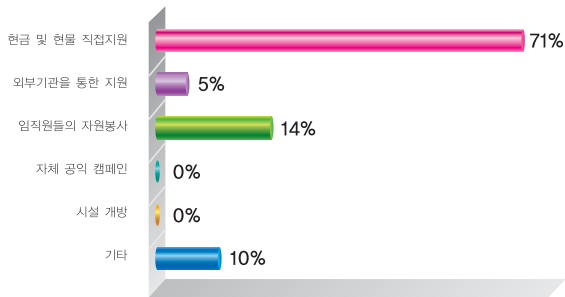
12. 사회공헌활동 중 향후 주력 분야(복수응답)

사회공헌활동 중 앞으로 주력할 분야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답한 기업들이 많았다. 응답한 기업들의 75%에 달했으며 이는 앞의 2번 문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47%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주력할 분야로 15%의 기업이 ‘문화예술지원사업’을 꼽았다. 2번 문항과 비교했을 때, 이 또한 상승된 수치다. 다음으로는 ‘교육연구진흥사업’과 ‘기타지원사업’이 각각 5%를 차지했다.



13. 사회공헌활동 추진시 방법

사회공헌활동 방법으로 기업들은 현금 및 현물 직접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공헌활동 방법을 묻는 질문에 71%의 기업이 ‘현금 및 현물 직접지원’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임직원들의 자원봉사’가 14%를 차지했다. 외부기관을 통한 지원도 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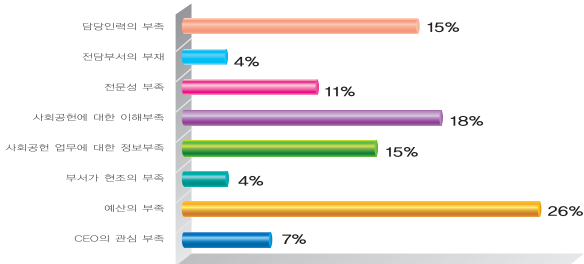
14. 사회공헌활동 추진시 내·외부 장애요인(복수응답)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추진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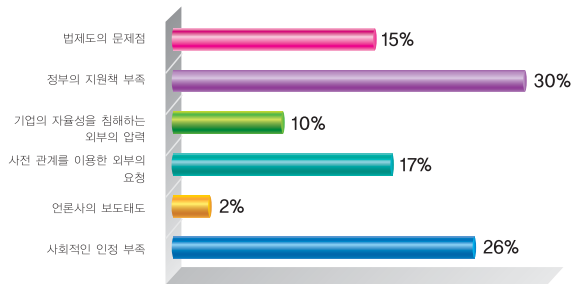
았다.

기업들은 기업내부요인으로 가장 먼저 ‘예산의 부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부족’을 꼽았다. 이들은 각각 26%와 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담당인력의 부족’과 ‘사회공헌 업무에 대한 정보부족’이 15%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CEO의 관심부족도 7%의 비율을 차지했다.

기업외부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원책 부족’이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사회적인 인정 부족’도 26%를 차지해 사회공헌활동의 걸림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7%를 차지한 ‘사전관계를 이용한 외부의 요청’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공헌활동 추진 장애요소 - 내부요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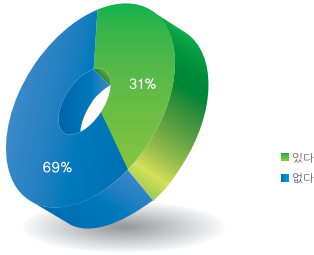


\* 사회공헌활동 추진 장애요소 - 외부요인(복수응답)

문화공헌활동

15. 문화공헌활동 전개 여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중 31%만이 문화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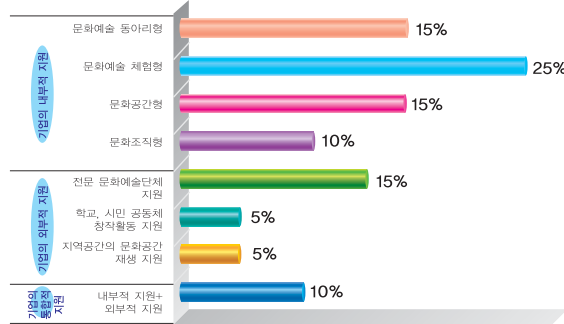


16. 문화공헌활동 실시 유형(복수응답)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문화공헌활동 유형으로는 기업의 내부적 지원이 65%에 해당했으며, 외부적 지원은 25%, 내·외부적 지원을 합친 기업의 통합적 지원은 10%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내부적 지원 중에는 ‘문화예술체험형’ 지원이 전체 지원 중 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동아리형’, ‘문화공간형’이 각 15%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의 외부적 지원 중에는 ‘전문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15%를 차지하였다. 통합적 지원은 1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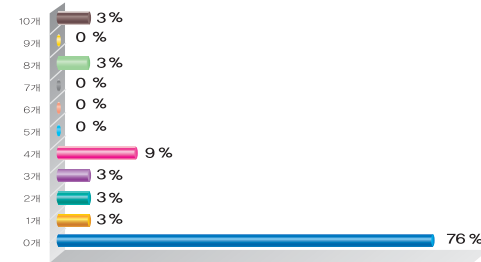


17. 사내 동아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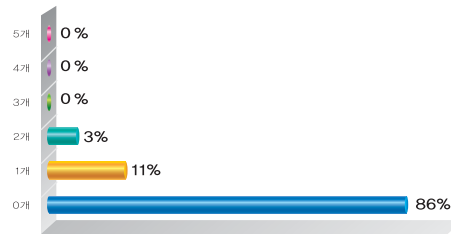
사내 동아리 수로는 동아리가 없는 기업이 76%에 달했

으며, 4개 있는 기업이 9%로 나타났다. 3, 2, 1,개의 동아리를 가진 기업은 각 3%로 조사됐다.

이 중 문화예술동아리는 86%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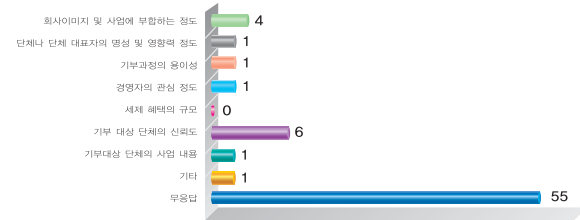
\* 사내 동아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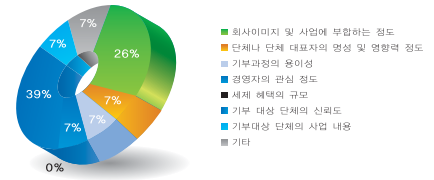
\* 사내 문화예술 동아리수

18. 문화공헌활동 수혜단체 선정시 고려 사항(복수응답)

기업들은 문화공헌활동 수혜단체를 선정할 때 ‘기부대상 단체의 신뢰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9%의 기업이 이에 답변을 하였으며, ‘회사이미지 및 사업에 부합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기업은 26%에 해당됐다.



\* 문화공헌활동의 수혜단체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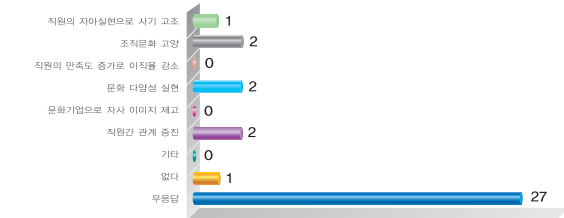


\* 문화공헌활동의 수혜단체 선정기준(무응답 제외),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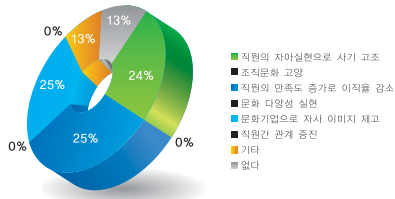


19. 문화공헌활동 전개 후 효과(복수응답)

문화공헌활동의 어떠한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직원간 관계 증진’과 ‘문화다양성 실현’을 같은 25%의 비율로 꼽았으며, ‘조직문화 고양’이 24%로 그 뒤를 이었다. 효과가 ‘없다’는 기업도 13%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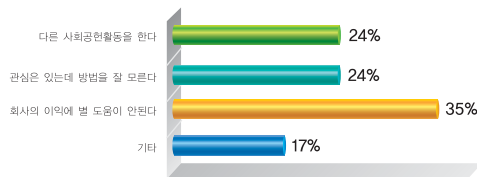
\* 문화공헌활동의 효과



\* 문화공헌활동의 효과(무응답 제외), 복수응답

20. 문화공헌활동 참여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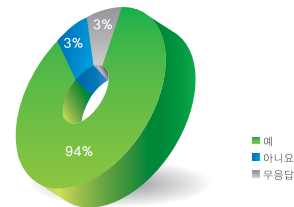
35%의 기업들은 문화공헌활동이 ‘회사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각각 24%를 차지한 ‘다른 사회공헌활동을 한다’와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와 비교했을 때, 11%p 많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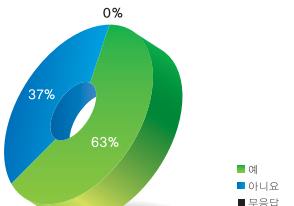
20~21. 성남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 인지도

기업들의 94% 성남아트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남문화재단은 63%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성남아트센터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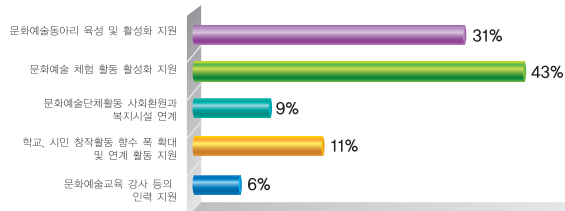
\* 성남문화재단 인지도



23. 성남문화재단에 바라는 정책(복수응답)

기업들은 재단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문화예술체험 활동 활성화지원’을 43%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이 31%를 차지했으며, ‘학교, 시민 창작활동 향수 폭 확대 및 연계활동 지원’은 11%를 차지했다.



## 시사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그 중 문화공헌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마련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문화공헌활동에 대한 인식과 그 활동은 아직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6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문화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 중 31%에 그쳤다는 점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문화공헌활동이 '회사에 이익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기업이 35%에 달하고 문화공헌활동의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13%나 되었다. 이는 앞으로 기업의 문화공헌활동을 끌어냄에 있어 인식전환 방편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른다'라고 답한 기업이 24%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공헌활동에 대한 홍보 전략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공헌활동의 개념 역시 확립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는데, '사회공헌활동을 안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내부적인 지원형태의 문화공헌활동 한다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볼 때, 내부적인 문화 활동은 문화공헌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부분 내부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업 내부의 창조적 문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장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적 지원을 장려하는 정책마련과 동시에 기업의 외부적 문화예술지원활동 역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사회공헌활동 역시 '사회복지사업'으로 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 2순위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꼽은 것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과 문화공헌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사회공헌활동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45%만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66%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로 현재의 경제 불황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 법제도의 미비 등도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시의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성남지역 3개 대기업 심층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성남지역 기업들 중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고, 창조산업인 첨단지식정보산업군에 속하는 기업 3곳(NHN, SK C&C, KT)을 선정해 온라인 인터뷰와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메세나부문, 지역사회와의 관계부문, 조직문화부문의 크게 세 부문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개략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메세나부문 : 전담부서의 유무, 지원사업의 동기, 목적, 내용과 더불어 예산액과 지속 가능 여부, 문화재단에 바라는 정책 등을 조사한다.
- 2) 지역사회와의 관계부문 : 지역사회와의 교류여부,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나 구성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는지의 여부, 지역 밀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과 이를 위해 문화재단에 바라는 정책과 개선사항을 조사한다.
- 3) 조직문화부문 : 조직문화 전담부서의 유무, 조직문화의 특성과 지향점, 조직문화를 위한 실행 사업, 조직문화가 메세나활동이나 지역사회지원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단과의 공조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 ◆ NHN



NHN은 1999년 설립된 인터넷 포털 기업으로 도전, 열정, 창의와 혁신을 핵심가치로 실천하는 '젊은 기업'이고, 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교육, 자원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메세나활동

2004년부터 사회공헌팀을 신설하여 메세나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은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이다. 해피빈은 2005년 7월 NHN과 아름다운 재단이 공동으로 만든 온라인 기부 포털로, 도움이 필요한 공익단체와 기부하고자 하는 네티즌을 이어주는 포털사이트이다.

이 곳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단체의 자세한 사연이 후원 프로젝트 내에 공개되어 네티즌들은 그 내용을 읽고 원하는 프로젝트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 형식은 온라인 기부 아이템인 ‘해피빈 쿡(쿡 1개당 100원)’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 행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결제해 사용할 수도 있다.

‘후원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지원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관현악 오케스트라 ‘하트’를 후원하는 ‘온 세상에 스마일 : 2008. 03.17 ~ 2008. 12. 31’
- 2) 환자, 장애인, 의사 등 아픔을 둘러싼 사람들을 대상으로 찍은 사진작가 김우영씨의 사진전 후원 ‘Hello Everyone! 다 함께 행복한 세상 : 아주 특별한 우리 이웃 100인의 사진전 2007. 06. 12 ~ 2007. 06. 24’

또한 이 곳에 가입한 공익단체들에게 ‘해피로그’라는 블

로그를 운영하게 해 네티즌과의 상호교류를 돕고 있는데 ‘해피로그’에 가입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피로그와 함께하는 후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해피로그에 가입한 공익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이들에게 문화예술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1) 영화진흥위원회가 1년에 4차례 공익단체들에게 총2만5천장의 영화티켓을 제공하는 ‘영진위와 함께하는 사랑의 티켓 나눔(2007. 12~)’
- 2) 전시초청행사인 ‘모딜리아니와 잔느의 행복하고 슬픈 사랑展 초청 (2008.01.30~02.12)

#### 지역사회와의 관계부문

NHN의 전반적인 사회공헌활동은 특별히 성남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위의 메세나 사업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사업영역인 IT를 기반으로 하는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전국적인 범위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은 특별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NHN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메세나 사업에 부합되는 지원사업부터 제안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조직문화부문

NHN은 개개인의 창의성, 혁신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자율적인 기업문화와 근무환경의 조성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문화 프로그램으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Refresh 휴가제도, 동호회 지원을 꼽을 수 있다.

o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자기계발, 체력단련, 학자금지원, 전자제품구입, 문화생활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 1인당 연 평균 180만원 규모의 금액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o Refresh 휴가제도는 입사 3년차 이상의 직원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refresh 휴가와 소정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o 문화예술, 체육, 취미 활동 등을 하는 사내 동호회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12개의 동호회에 250여명이 활동 중이며 회사에서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월별로 동호회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o 또한 ‘GWP : 일하기 좋은 일터’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직원들의 활기찬 하루를 위해 과일을 제공하는 ‘Fresh up! Fruit day!’를 진행하고, 매달 월급날은 ‘V-day (Vitamin 과 Victory를 의미함)’로 칭해 비타민, 영양차 등의 깜짝 선물을 전 직원의 자리에까지 배달한다.

#### 소결 및 시사점

NHN은 젊고 혁신적인 IT기업답게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이의 필요성도 별로 느끼고 있지 않다.

o NHN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보았을 때 이들을 지역사회와 관계 맺게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 파급력을 가져

을 것이므로, 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발적인 사업으로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단계씩 관계를 맺어가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단이 해피로그의 문화예술체험을 지원하는 것, 사랑방 문화클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들의 네트워크와 축계에 NHN동호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NHN동호회에 지역 예술강사를 연계시켜 지원하는 것 등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확대되면 점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NHN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 SK C&C



SK C&C는 1991년 설립된 대표적 IT기업으로, 기업의 특성을 살려 IT보급에 앞장서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

회사설립초창기부터 총 4명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전담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사회복지부, 교육/장학부, IT를 통한 정보화지원부, 자원봉사부, 문화예술지원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화예술지원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SK C&C의 전 임직원은 1년에 2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봉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에게 풍선 아트, 발마사지 등의 강의를 제공하고 이것을 봉사활동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 분야가 IT이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살려 IT를 중요한 축으로 놓고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성남지역의 장애인,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등 성남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부문활동으로는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SK C&C 효마당,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대회, 지역사회 NGO 초청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교육·장학부문활동으로는 성남지역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중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행복장학금 사업, 성남지역 저소득층 자녀들과 결연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한 IT특강 등을 진행하였다.

IT를 통한 정보화지원부문활동으로는 2004년 성남에, 2005년 일산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원을 설립해 장애인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문 IT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있다. 또한 전국 공부방과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기관에 PC를 제공하고 유지, 보수하는 희망의 PC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부문활동으로는 매년 여름 임직원 가족들과 무연고 장애아동들이 한 가족이 되어 생활하는 1박 2일의 가족 봉사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내 봉사동아리가 시각장애아동시설인 한빛맹아원을 찾아 시각장애아동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한빛 앙상블 연주회'를 진행하였다.

내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프로그램은 없으나 IT나 미디어와 연계된 사업을 시행해보려고 구상 중이다.

#### 지역사회와의 관계부문

SK C&C는 성남지역의 장애인, 독거노인, 사회복지기관, 저소득계층 자녀들을 사회공헌활동의 주 대상(성남지역 대상 활동이 50% 이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은 매우 높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조직문화부문

SK C&C에는 다양한 사내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특히 이 중 음악 동아리, 댄스 동아리 등 문화예술 동아리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을 향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사내 사진 동아리는 현재까지 다수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는데, 독거노인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사내 사회공헌활동 시 사진촬영,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 소결 및 시사점

인터뷰에 응했던 담당자는 문화예술지원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사례/ 연계 가능한 기관/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등을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 C&C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과 연계된 활동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그 이유는 기업의 특성인 IT를 활용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사내 음악 동아리, 댄스 동아리 등 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을 사회공헌과 연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이들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등의 성남문화재단 정책들과 연계

시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밝혔듯이 SK C&C는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의 사회공헌활동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으나 IT나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다음의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사업인 ‘다음 미디어 스쿨’ 등의 프로그램을 성남지역에 맞게 재구성해 제안해보면 좋을 것이다.

### ◆ KT



KT는 1981년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

KT 본사에는 6명으로 구성된 사회협력태스크가 설치되어 사회공헌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11개 지역본부에서는 CSR부서에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T의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정보통신 혜택을 확대시키는 IT나눔, 문화예술지원활동인 문화나눔, 사회봉사활동인 사랑나눔, 환경보호활동인 그린나눔으로 나누어진다.

문화예술지원활동은 'KT art Hall' 운영, 청계천 조형물 '스프링' 기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KT art Hall에서는 매일 저녁 국내외 유명 Jazz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을 전원에 볼 수 있는 'Jazz and the City'가 열리고 이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층 청각장애아의 소리찾기에 쓰인다. 그리고 젊고 실력 있는 젊은 작가들을 선정해 다양한 전시를 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신청을 통해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UCC제작을 할 수 있는 UCC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KT art Hall에서는 매월 청각장애아를 초청해 문화예술공연을 보여주고 전시를 관람하게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재즈콩쿨을 열어 젊고 실

력 있는 재즈 뮤지션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의 관계부문

KT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으로 특별한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성남지역대상의 사회공헌활동도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다.

한 가지 지역주민 참여사업으로 들 수 있는 것은, KT 본사 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문화예술초청공연을 열고 있는데 이 때 지역주민도 함께 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 조직문화부문

KT는 성장과 기회가 보장되는 일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즐거운 일터, 신뢰가 넘쳐나는 인간적인 일터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직원 복지 확대, 사내 동아리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KT는 2007년부터 문화예술인네트워크 ‘홀앳폴’을 지원하면서,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경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홀앳폴’은 KT가 후원하는 젊은 예술인 그룹으로 영화감독, 건축가, 무용가 등 100여 명의 젊은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KT신사업추진본부가 있는 교보타워에서 전시 기획, 모임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 특이할만한 점은 이들의 창의성을 KT의 경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교보타워에 KT 고객가치혁신센터 (CVIC·Customer Value Innovation Center)를 두고 이들 예술가들과 신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특히 KT의 40~50대 임원들은 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얻고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2007년에는 ‘원더풀 KT벤처 어워드’라는 벤처 아이디어 대회 시상식에서 ‘홀앳폴 어워드’를 선정해 예술 관점에서 본 참신한 벤처 아이디어를 뽑았다.<sup>1)</sup>

#### 소결 및 시사점

KT의 메세나 활동은 주로 KT art Hall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대상 메세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성남지역대상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KT본사 강당에서 매달 열리는 임직원 초청 문화예술공연에 지역주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단은 이 행사의 공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KT로부터 사랑방 문화클럽에의 공간 지원을 받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남 Civic센터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인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성남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제안해 볼 만하다.

o 인터뷰에 응했던 KT의 담당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성공을 예로 들면서, 지역의 문화예술환경이 잘 조성되고 대표적인 문화예술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활발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성남에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일방적인 관주도 정책은 기업이 부담을 느낄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화 브랜드로서 성남의 인지도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의 인지도를 확고히 만들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1) 매일경제 「기업 문화사랑」 KTO트윅스엔 365일 공연이 흐른다. (2007. 11. 29)



## 부 록

## 성남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설문조사표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는 상기 제목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조사는 향후 성남시 소재 기업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상공회의소의 공동 프로젝트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성남문화재단의 (가제)『2008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책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귀사와의 관계성이 실명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지 일반사항 관련 항목에만 실명으로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 11

공동주관 : 성남문화재단, 성남상공회의소

.....

서술형 답란에는 간략한 개요를, 선다형 답란에는 해당 보기의 번호를 표기해 주시고 선다형 기타란에는 간략한 내용만을 서술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있다                      ② 없다

②항에 답한 경우 10번 문항부터 계속 진행 ➡

\* (2~9) 1번 문제 ①항에答한 경우에만 응답

2. 귀사는 어떤 유형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셨습니까?

다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분류표>에서 해당사항의 백분율 ( /100)%를 기록해주시요.

분 야	정 의	내 용	실 행 백 분 율	
분야별구분	1.사회복지 사업	소외계층 지원, 각종사회복지 단체 지원, 각종 질병 연구기관 지원	11.사회복지시설지원 12.국민건강 사업지원 13.병원 설립,운영 지원 14.소외계층 지원 15.벽지, 낙도 지원 16. 장애자 지원 19.기타 사회복지 사업	( ) %
	2.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연극 등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21.문화시설 건립, 운영 22.문화도서 발간, 보급 23.문예단체 행사지원 24.국제 문화교류 지원 29.기타 문화예술 진흥사업	( ) %
	3.교육연구 지원사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을 위한 장학금, 연구비 지원	31.교육시설 설립, 운영 32.교육시설 지원 33.장학금 지원 34.사회인 교육사업 35.연구비 지원 36.학술, 연구단체 지원	( ) %
	4.체육지원 사업	스포츠팀 운영, 각종 경기 단체 지원, 기업의 스포츠시설 개발	41.스포츠팀 운영 42.사회체육시설건립, 운영 43.체육단체 행사지원 44.체육 특기자 지원 45.국제 스포츠 교류 지원 46.체육시설 개발 49.기타 체육 진흥사업	( ) %
	5.민간운동 지원사업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청소년보호, 등 각종 사회단체 또는 활동 지원	51.환경보호 지원 52.환경보호단체 지원 53.미아, 이산가족 찾기 지원 54.소비자보호 운동 지원 55.청소년 선도활동 56.북한통도 지원 59.기타 민간운동 지원 사업	( ) %
	6.국가/ 공공활동 지원사업	각종 재난구호 활동지원 각종 국가 또는 공공단체 활동지원	61.재난구호 기금지원 62.재난구호 인력지원 63.재난구호 물품지원 64.공공행사 지원 65.공공단체 지원 66.대북지원 사업 69.기타 공공활동 지원사업	( ) %
	7.기타 지원사업	앞에 제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회참여활동	71.무엇( ) 72.무엇( ) 73.무엇( )	( ) %

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②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③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④ 기타 ( )

4.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① 정부, 지자체의 협조요청

## ② 언론사의 각종 캠페인

### ③ 기업 관련단체의 협조요청

### ③ 동종기업의 기부

⑤ 자체 기업의 필요성

⑥ 기타 ( )

5. 귀사의 사회공헌활동 결정과정에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셨습니까?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① 신문

② 방송

## ② 경영진의 지인

#### ④ 실무자의 지인

⑤ 정부, 지방자치단체

⑥ 시민/사회단체의 홍보자료

⑥ 기타 (

)

6. 귀사의 공헌활동 참여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 회사의 사전계획에 따라

②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③ 기타 ( )

7. 귀사에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는 '전담부서'란에 없는 경우는 '담당부서'란에 답해주십시오.



8. 귀사는 사회 공헌에 관한 문서화된 내규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준비 중이다                      ③ 모르겠다                      ④ 없다

9. 귀사에서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한 직원들에게 인사나 업무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

10.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동호회 모임 등 다른 활동을 지원한다
- ②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
- ③ 회사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 ④ 재정 문제
- ⑤ 기타 ( )

11. 귀사는 향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①항에 답한 경우 12번 문항부터 계속 진행  
②항에 답한 경우 14번 문항부터 계속 진행

12. 다음의 사회공헌활동 중에서 향후 귀사에서 주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 입니까? ( )

① 사회복지사업                      ② 문화예술포진사업                      ③ 교육연구진흥사업  
④ 체육진흥사업                      ⑤ 민간운동지원사업                      ⑥ 국가/공공활동지원사업  
⑦ 기타 지원사업 (                      )

13. 귀사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현금 및 현물 직접지원                  ② 외부기관을 통한 지원  
③ 자체 공익 캠페인                        ④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  
⑤ 시설 개발                                      ⑥ 기타 ( )

14. 귀사의 사회공헌활동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우선순위를 3번째까지만 제시해 주십시오.

### 〈내부요인〉

우선순위 1. ( ) 2. ( ) 3. ( )

① 담당인력의 부족 ② 전담부서의 부재 ③ 전문성 부족  
④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부족 ⑤ 사회공헌 업무에 대한 정보부족  
⑥ 부서간 협조의 부족 ⑦ 예산의 부족 ⑧ CEO의 관심 부족

### 〈외부요인〉

우선순위 1. ( ) 2. ( ) 3. ( )

① 법제도의 문제점 ② 정부의 지원책 부족

③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

④ 사전 관계를 이용한 외부의 요청 ⑤ 언론사의 보도태도 ⑥ 사회적인 인정 부족

● 사회공헌활동 현황

15. 귀사는 문화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나 전개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①항에 답한 경우 16번 문항부터 계속 진행  
②항에 답한 경우 20번 문항부터 계속 진행

\* (16~19) 15번 문제 ①항에 답한 경우에만 응답

16. 귀사는 어떤 유형의 문화공헌활동을 전개하십니까?

다음 <기업의 문화공헌활동 분류표>에서 해당사항의 백분율( /100%)을 기록해 주십시오

분 야		정 의	내 용	실 행 백 분 율	
분야별 구분	1. 기업 의 내 부 적 지 원	1) 문화예술 동아리형	기업 내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따른 자발적인 동아리 조직과 행사 지원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의 장르별 동아리 육성	(        ) %
		2) 문화예술 체험형	기업 구성원들의 문화예술의 참여 폭 확대 지원	• 미술전시, 공연행사 참여 등 문화생활비 지원, •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 문화예술 체험 배낭여행	(        ) %
		3) 문화공간형	기업 내부에 문화 공간 설립 및 운영을 통한 문화활동 지원	• 미술관, 음악당, 세미나실 등 복합문화공 간 설립 및 운영	(        ) %
		4) 문화조직형	기업 내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조직운영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지원	• 기업 내 블로그 커뮤니티, • 문화도서 발간, • 국제 문화교류, • 문화 이벤트의 정례화	(        ) %
	2. 기업 의 외 부 적 지 원	1) 전문 문화예술단체 지원	전문문화예술단체와 단체의 행사에 대한 후 원, 협찬 등 창/단기 지원	• 전문 문화예술단체 후원, • 단체의 행사 대상으로 현물 협찬, 금액 지원, 자원봉사 협력	(        ) %
		2) 학교/시민 공동체창작활동 지원	시민클럽, 학교, 시민공동체 등 아마추어 창작 활동의 후원 및 협찬 지원	• 전시 및 공연 행사 후원, 협찬	(        ) %
		3) 지역 공간의 문화 공간으로의 재생 지원	지역민에게 문화공간 창출 지원	• 카페, 사무실, 유휴 공간, 빈 공간 등을 공 연장, 미술전시장으로 리모델링	(        ) %
	3. 기 업 의 통 합 적 지 원	내부적 지원 + 외부적 지원	기업 구성원들이 외부 자원 사업에 직접 참 여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는 문화예술체험 기 회와 시민 공동체와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 고 지역사회에는 유/무형적 문화예술 인프라 를 제공	• 기업 내 예술동아리의 사회복지시설 대상 예술교육, • 전문예술인으로부터 실기/이론 예술강좌 수강, • 기업 내 동아리와 시민 예술 동아리들과 의 연합 행사	(        ) %

17. 귀사에는 몇 개의 동아리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문화예술 동아리는 몇 개입니까?

(1) 동아리 (        )개

(2) 문화예술동아리 (        )개

18. 귀사가 문화공헌활동의 수혜단체를 선정할 때 중요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① 회사이미지 및 사업에 부합하는 정도

② 단체나 단체 대표자의 명성 및 영향력 정도

③ 기부과정의 용이성

④ 경영자의 관심 정도

⑤ 세제 혜택의 규모

⑥ 기부 대상 단체의 신뢰도

⑦ 기부대상 단체의 사업의 내용

⑧ 기타 (        )

19. 문화공헌활동의 경우 다른 사회공헌활동에 비해 귀사에 미치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

① 직원의 자아실현으로 사기 고조

② 조직 문화 고양 (열정, 창의력 증대 등)

③ 직원의 만족도 증가로 이직률 감소

④ 문화 다양성 실현

⑤ 문화기업으로 자사이미지 제고

⑥ 직원간 관계 증진

⑦ 기타 (        )

⑧ 없다

\* (20) 15번 문제 ②항에 답한 경우에만 응답

20. 문화공헌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다른 사회공헌활동을 한다.

②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

③ 회사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④ 기타 (        )



3.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 후속 프로그램의 발굴 또는 추진, 임직원 만족도 성과 등 사내 평가 및 외부 수혜자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사항

귀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 업 명		설 립 연 도	
대 표 자 명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홈 페 이 지			

귀사의 유형과 규모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 업 분 야	①제조 ( ) ②판매 ( ) ③서비스 ( ) ④기타 ( )		
기 업 유 형	①개인사업체 ( ) ②회사법인 ( ) ③기타 ( )		
사 업 형 태	①독립 사업체 ( ) ②국내기업 지사 ( ) ③외국기업 지사 ( )		
자 산 규 모		상근 직원수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2008 기업의 문화공헌 프로젝트

## 藝 · 社 로운 만남

주 최 성남문화재단 · 성남상공회의소  
주 관 이십육점구

예술감독 박진영  
큐레이터 정삼선  
도큐멘터 강문영